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5월 21일)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최첨단 IT기술 활용해 불자 역량 결집 나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비드테크와 6월 24일 협약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조계종 신도 조직화의 신호탄이 될 불자 정보화 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6월 24일 전법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식회사 비드테크(대표 강철순)와 '불자 역량 결집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불자역량 결집을 위한 정보화 사업은 중앙신도회 27대 집행부의 주요사업으로 불자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흩어진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조계종 신도등록 및 조직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추진돼 왔다. 현재 시범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일부 구축

WEB DB로 불자 정보 공유
메신저로 신도와 소통 지원
8월1일 정식으로 출시 예정

결제가능한 디지털 신도증
소비 혜택, 기업 수익 제공
불교경제공동체 구축 추진

된 상태로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비드테크 측은 오는 7월부터 약 1개월간 시범 운영 후 수정 보완하여 8월 1일 정식 출시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비드테크는 시스템 구축과 앱 개발은 물론, 유지 · 보수와 데이터 관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불자 기업인 비드테크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유수 기업들과 공공기관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도증과 데이터베이스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정보화 서비스를 통한 변화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불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조계종 신도등록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조계종 신도라는 한정된 자격과 제한된 정보 등으로 이를 활용하는 부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불자DB 구축을 통해 불자 기업들 간의 상생을 이끌고, 불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공동체까지 구축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먼저 웹 속에 DB를 넣어 행정구역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른 불자들의 정보를 알고 각종 사업에서 불자들을 중심으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통합 메신저도 선보인다. 메신저는 실시간 소통과 정보 공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전국신도회 등 신도 조직의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철순 비드테크 대표는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전용 메신저를 통해 지역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불교 발전을 위해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데 무한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신도회 일선현장에서는 불자DB 구축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자 정보화 사업을 통해 형성될 경제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은 "이웃종교의 경우 같은 종교인끼리 연대하고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사실 불자들은 이러한 이웃종교의 문화 속에 소외되어 불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불교 내 상부상조 문화가 정착되면 포교 동력이 생기고, 전국에 구축된 신도회도 조직을 강화하고 활동을 배가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자DB 구축과 함께 이를 활용한 신도 멤버십 서비스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조계종 신도증의 경우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제작돼 별도로 지니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사찰 입장료 할인 외의 할인 혜택은 효용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말 새롭게 발급될 디지털 신도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 · 변조가 불가능하며, 스마트폰에 탑재돼 사용 가능하다. 중앙신도회는 결제 기능까지 추가해, 신도들이 가맹 불자기업에서 사용 시 자동으로 할인되도록 하고, 불자기업의 경우 고객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 신도회장은 "종단과 TF 협의를 통해 기존 신도증 발급을 디지털 신도증으로 발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불자기업에서 불자들이 예약과 지불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한다"며 "생각지도 못한 할인혜택 등 멤버십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불교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기독교, 성공회,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 부산 6대 종교 성직자 및 신도들이 UN참전국 전몰장병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재를 봉행했다. BCRP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는 6월 23일 UN기념공원 위령탑 앞에서 '2021유엔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재'를 개최했다. 위령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6대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 30여 명이 소규모로 참여했으며 각 종교별 추모의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23000여 명의 전몰장병 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호국영령위령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글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추천

군종특별교구 상임위원회
6월23일 단독후보로 선출

해군법사 역임, 인천 포교 앞장
불사 성취, 군승 복지개선 과제

조계종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로 인천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사진〉이 단독 추천됐다. 군종특별교구는 6월 23일 서울 용산 호국 원광사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을 역임한 선일 스님을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로 단독 선출했다.

이날 군종교구 상임위 회의에는 상임위 20명 중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기획실장 삼혜, 교육부장 서봉, 포교부장 정인 스님 등 종단측 상임위원 8명과 정우 이정우, 보경 함현준, 종오 고현등, 법혜 장철수 군승법사와 군승단 측 상임위원 8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상임위 회의서는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일 스님을 후보로 추천했다.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인 선묵 혜자 스님의 임기는 7월 23일까지로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의 임명이 진행되면 7월 24일부터 4년간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일 스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6년 운기 스님을 은사로 대흥사로 출가,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79년 군승 파송 초기 군법사로 임관해 1986년까지 해군에서 군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했다. 대위로 전역 이후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특별비구계를 받았다. 스님은 미국 봉황사 주지에 이어 현재 인천 법명사 부루나 포교원 회주로 있다.



인천 법명사 부루나포교원은 선일 스님이 부루나 존자의 포교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창건한 사찰로 1989년 5월 작은 상가에서 월세로 시작해 현재는 인천지역 불교포교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일 스님은 특히 '부루나 선행회'를 만들어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지역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 제공과 사랑의 연탄나눔봉사, 환경정화활동,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활동 등을 적극 전개했다. 선일 스님은 2008년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지역불교 발전에 노력했으며,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회장으로 청소년 포교활동도 진행했다. 2016년부터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를 맡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두 번째 지역본부인 인천본부 출범과 함께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3대와 4대 군종특별교구에서 부교구장을 역임했다.

선일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군포교를 열심히 하라는 불교계 뜻을 받들어 힘껏 노력하겠다. 군포교를 위해, 청년포교를 위해, 현장에서의 군법사의 후생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군법사로 "복무할 당시에는 70~80년대였기에 그때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군포교를 진행할 순 없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구 불사와 포교사업을 파악해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호국 홍제사 불사는 5대 군종특별교구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선일 스님은 "종단의 백만원력결집불사에서도 불사금을 지원해주는 등 불교 안팎의 관심이 많다. 불사가 원만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법에 따르면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승랍 25년 이상, 세랍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군포교 원력과 경험이 풍부한 승려 중 상임위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군종교구 본사주지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화종 정상화 첫발…'파사현정' 천명

6월 19일 수도암서 75주년 창종법회

청사 진입 후 첫 공식적 행사
원로 · 지역교구 스님들 참석
정상화 위한 종도 염원 결집



법화종 창종 75주년법회는 종단 정상화를 향한 종도들의 염원을 모아낸 법석으로 마련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긴 혼란에 몸살을 앓았던 법화종이 창종 75주년을 맞아 종단 정상화를 향한 종도들의 염원을 모아냈다. 지난 수년간 일부 집행부 인사들의 자격 논란과 이해관계에 얽힌 전횡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 왔던 만큼, 이제는 파사현정의 기치를 내걸고 종단을 바로잡겠다는 원력이 굳건히 섰다.

법화종(총무원장 서리 혜문)은 6월 19일 종정 도선 스님의 주석처인 의성 수도사에서 '법화종 창종 7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 체제의 집행부가 총무원 청사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뒤 처음으로 열린 공식행사다. 집행부는 지난 6월 16일 총무원 청사를 무단점거 중이던 비상대책위 일부 인사들이 종정 도선 스님과 서리 혜문 스님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점거를 해제함에 따라 청사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75주년 창종법회는 법화종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법석으로 마련됐다. 원로의원 오봉 · 법진 · 진덕 · 혜각 · 보명 스님이 고령에도 참석했으며, 경주, 강원, 경동, 김창, 제주, 동해 등 전국 지역교구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혜광 스님 등도 함께했다.

이날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종단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스님은 "우리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외면하다보니 내부에서 곪아터진 환부가 여실히 드러났고 어느 부위부터 수술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종단 정상화의 길은 멀고 힘든 여정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종단 스님들과 총무원 임원 스님들이 함께 정진한다면 불력(佛力)의 도움과 약왕보살의 처방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계율을 어기고 사바라이죄를 범한 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님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노골화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의 정상 참작은 없다"며 "종단 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화미래 100년은 요원하다는 자각으로 책임이 있는 자를 일벌백계하겠다. 애종심과 주인의식으로 풍전등화의 종단을 일으켜세우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로의원 보명 스님도 "종단 사부대중 모두가 일심으로 합심해 종정 예하의 가르침을 봉대하고 총무원장 서리 집행부가 종단살림을 이끌어나가는 데 일조해야 한다"며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오늘 자리에서 법화의 새 불교운동을 위한 정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파사현정에 나서자. 원로스님들이 그 길에 동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의성 수도암에서 창종 75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되던 시각, 총무원 청사를 점거했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운) 측도 춘천 강선사(주지 성운)에서 창종법회를 진행했다.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애초 총무원 청사에서 이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집행부 진입으로 점거가 종료되면서 위원장 성운 스님의 사찰인 강선사로 장소를 옮겼다. 법화종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종법상 권한 없이 청사를 부당하게 점거한 채 공찰 주지 임명 등 종무상 월권을 행사하고 종도들에게 강선사 창종법회 참석을 공지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래 불교 혁신방안 모색 '첫발'

화합과혁신위, 6월 23일 전체회의서 상임위 구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하고 종단 차원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첫 발을 내디뎠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합과혁신위원회(위원장 정념)는 6월 23일 서울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3년간의 기획단계에서 활동방향성과 수행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만큼, 이날 회의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중앙종회 차석부의장 만당 스님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상임위는 위원장 정념 스님과 부위원장 만당 스님, 지우 스님, 법원(정토사) 스님, 대현 스님, 정관 스님, 김상규(前 공무원불자회장) ·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화합과혁신위는 기획단계에서 사전 도출한 5개 분야 40개 한국불교 혁신의 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의제를 선정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의제는 상임위원회 및 정책팀 연석회의를 통해 선정 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7월 20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한국불교 그랜드디자인을 구상하다' 주제로 진행되며 정념 스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의 '위기의 시대, 한국불교의 과제',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의 '한국불교 과제 해결을 위한 열쇠', 유정길 위원의 '문명전환 시대, 불교의 대응과정 구상과 모색'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 한국불교 혁신을 위한 핵심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논의결과는 9월 중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최종 확정한다.

위원장 정념 스님은 "문명 전환이라는 큰 변화흐름 속에서 한국불교와 우리 종단은 대대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화석화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화합과혁신위는 한국불교와 종단이 나아갈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운데 교학과 교육체계, 수행과 포교 등 각 분야의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살피고 고민해 우리사회 속 한국불교와 종단의 진정한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 마곡사, 7월15일 개최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7월 15일 열린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탄공)는 최근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주지 입후보자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스님으로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 등이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5일 오후 5시까지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6월 22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며,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7월 6일부터 8일 오후 5시까지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디지털 기부로 모금 다변화

6월 22일 5차 회의서 논의
키오스크 불전함 기부메뉴
디지털방식도 추가로 예정



백만원력 발우저금통 배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 모금이 모바일과 디지털 방식 등으로 다변화된다. 백만원력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는 6월 22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백만원력결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반기 백만원력결집불사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방향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백면원력결집불사 홍보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해 모바일 SNS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 강화와 동참회원 확대를 위한 모금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동전, 지폐 등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 흐름 속에서 저금통 모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원모금 결제시스템 탑재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저금통 모금과 함께 정기후원, 비대면 SNS 활용 동참 방법 등의 확대다.

백만원력결집위원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저금통 위주로 모금을 하는데, 이젠 나이가 많으신 보살님들도 동전을 잘 쓰지 않는다. 모금한 동전을 받아 주는 은행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한다"며 "CMS를 비롯한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금석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은 "저금통 모금액이 생각보다 적다. 작은 사찰의 경우 저금통 모금액이 굉장히 작아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자동이체 등을 도입하면 지속적인 불사동참도 가능할 것 같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백만원력결집위원회에서는 자료를 통해 최근 도입되고 있는 사찰 디지털 불전함, 사찰 키오스크 등에 백만원력결집불사 후원코드를 넣는 것을 사찰에 제안하고, 후원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기후원이 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또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후원자 감사카드 및 선물 증정, 소식지 배포 등의 계획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위원장 금곡 스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홍보 강화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액기부 확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부 피드백 등으로 활성화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7월 6일 위례 신도시 포교당 착공식, 7월 8일 세종 광제사 입주식, 9월 호국 홍제사 현장시찰, 10월 경주 열암곡 마애불 예경 등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용진 의원, '평등법' 입법 의지 표명

6월 21일 원행 스님 예방서


박용진 의원은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평등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해 준 불교계에 감사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평등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원행 스님은 "평등법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특정분야에 대한 논란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 차원의 평등법 입법화 의지를 에둘러 확인했다.

박 의원은 "사실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러가지 넘어야 할 벽이 산적한 만큼 지속적인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한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명확한 만큼 여러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들은 입법 과정에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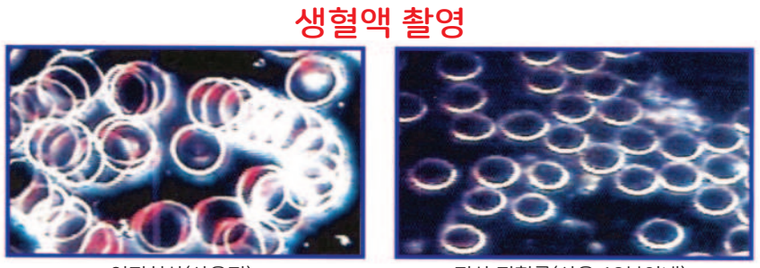
이어 박 의원은 "사회 통합을 위해 상대 종교를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배타적인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교계 격려와 지지가 더욱 필요한 이유"라며 확고한 입법의지를 드러냈다.

원행 스님은 "종교계 갈등은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법이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격려했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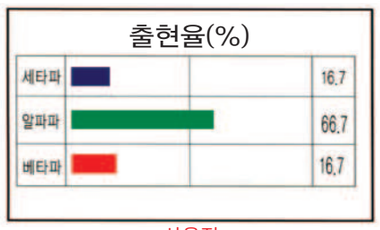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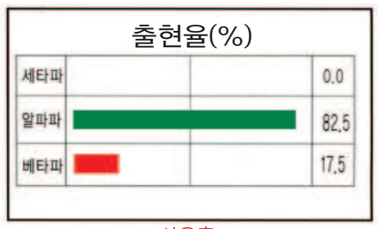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동국대 전산원 명칭 변경 추진 46년만

6월 22일 법인 이사회서 보고

전산학원 오인 등 변경 시급해
'동국대DUICA' 등 후보에 올라
차기이사회서 논의 · 결정키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전산원(원장 손재현)이 기관명 변경을 추진한다. 1975년 설립된 동국대 전산원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설립 4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6월 22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제337회 이사회를 열고 동국대 전산원 명칭 변경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보고자로 나선 손재현 동국대 전산원장은 새로운 기관명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공모를 통한 새 기관명 후보군에 대해서 설명했다.

손 전산원장은 "이미 숭실대와 강원대 등은 명칭을 변경해서 많은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동국대 전산원도 시대에 맞게 인문과 IT를 아우르는 새 명칭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관명은 전산원의 미래 비전과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전산원은 지난해 내부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 후보를 선발하려 했으나 적합한 명칭을 찾지 못했고, 올해 초 전문업체 의뢰를 통해 6개의 새 명칭을 제안받았다.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해당 6개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지지를 받은 명칭은 '동국대 핵심역량교육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국대 DUICA(듀이카)'였다.

손 전산원장은 "전산원의 새 명칭 후보인 '동국대 DUICA'는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를 직관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면서 "학생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도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국대 전산원 명칭 변경 결정은 차기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관명 변경이 확정되면 동국대 전산원은 기관 이미지 제고와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손 전산원장은 "진학지도를 위해 일선 고등학교를 방문하면 동국대 전산원을 전산학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기관명 변경은 시급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기관명으로 변경되면 이를 알리기 위해 일선학교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를 선도하고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개발 · 신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법인직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학과 · 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해외자산 취득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 의결했다.

학과 · 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간호학과 정원을 15명 확대하고 자유전공학부 정원 1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사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 간호학과의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기존 70명에서 85명으로 확대된다. 앞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 5월 간호대학을 신설하고 간호대학 내 간호학과 이외에 보건의료정보학과(정원 30명), 뷰티메디컬학과(정원 30명)를 신설해 3개 학과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자매결연 관계인 DULA의 건물 매각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자산 취득 취소'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DULA 건물을 매입키로 하고 지난 2019년부터 10년 동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DULA는 '상호 협의 하에 매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매매 계약 조항을 근거로 취소를 요청해왔고, 이사회는 건학위원회 운영 등 국내 사업 강화 등을 위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간 납입된 22억 원 가량의 매매자금 전액은 학교법인 동국대로 환수되게 된다.

정세균 후보, 전통문화 보존에 방점

6월 17일 대선 출마 선언
불교 관련 추진정책 제시



제20대 대통령 선거출마를 선언한 정세균〈사진〉 前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불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6월 18일 불교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불교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첫 번째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보존 · 전승을 위한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했다. 기념관 건립 뿐 아니라 보존계승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전통사찰 규제법령과 제도 정비 및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강화 및 예산 지원 확대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방안도 약속했다. 전통사찰 전기료 체계를 개선하고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공론화 해 보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10.27법난기념관과 치유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지원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상처 치유에 나선다.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불교 교류 ·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후보는 끝으로 "사회통합과 차별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종교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을 금지해 다문화시대 종교 ·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6월 1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 후보는 민주당 대표시절 당내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연등회' 창립을 주도하고,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등 사찰 불교전통문화 계승 및 불교계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봉은사,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 전개

부설 사찰음식문화연구소 개소

전문업체와 협력해 상품화
레시피 제공, 밀키트 구성
홈쇼핑 진출 계획 모색도



봉은사는 6월 20일 봉은 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개소하고 사찰음식 대중화의 첫발을 뗐다.

서울 강남 대표사찰인 봉은사(주지 원명)가 사찰음식 대중화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는 6월 20일 봉은 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개소하고, 소장으로 사찰음식 전문가 우관 스님을 임명했다. 봉은 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사찰음식이 최근 건강음식으로 각광받으며, 가정식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맞춰 자연치유음식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개소했다.

연구소에서는 향후 온라인 판매까지 염두해 가정간편식을 연구, 수익사업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복지와 봉사활동을 통해 힐링센터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맥스 식품사업부와 협의해 생산 및 유통과정을 구성해 식품업체에 사찰음식 레시피 제공, CJ오쇼핑 등에 사찰음식 런칭, 해외 수출 위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 이슬람 할랄음식까지의 영역 확대 등도 추진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사찰음식은 불교 전통문화를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된 만큼 이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특히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건강음식에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연구개발이 기대된다"고 기대를 표했다.

소장으로 임명된 우관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교재편찬위원과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마하연사찰음식문화원장으로 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로 후학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스님은 2013년 조계종 사찰음식 표준교재 초 · 중 · 고급을 공저했으며, 〈우관 스님의 손맛 깃든 사찰음식〉 〈우관 스님의 사찰음식 보리일미〉 등 저서가 있다.

사찰음식 국내외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2010년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 홍보행사 도감을 맡았으며, 인천아시안게임 아시아음식문화축제에서 사찰의 소박한 밥상을 전시하고, 이탈리아 세계슬로푸드대회 참여와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 사찰음식 강연, 영국 한국문화원 킹스웨이 칼리지 사찰음식 전시 등 강연과 시연회 등을 진행해 사찰음식 세계화에도 앞장서 왔다.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한국전통음식이자 K푸드로서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음식 대중화의 초석인 레시피와 간편식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곳에서 사찰음식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사찰음식을 맛보고 그 안에 깃든 불교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봉은사 사찰음식연구소 개소는 채식문화 확산과 함께 사찰음식을 통한 사찰의 수익사업으로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불교계에 사찰이 직접 제작해 유통하는 채식밀키트 등은 없는 상황이다.

봉은사 총무국장 탄원 스님은 "사찰음식을 알리면서 부수적으로 수익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전문업체들과 협력으로 해외 유통망도 확대해 현대인들이 찾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고종 상진문도회, 10명에 법맥 전승

6월 18일 청련사서 건당식



태고종 상진문도회가 새롭게 입실한 수법제자들에게 법맥을 전승했다.

상진문도회는 6월 18일 양주 청련사에서 제4회 건당식을 봉행했다.〈사진〉 건당식은 특히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건당식은 법주 능허 스님의 종사영반과 소대, 타종 등 가사 점안식과 이운의식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효능 스님의 고유문 낭독, 본격적인 전법의식 등으로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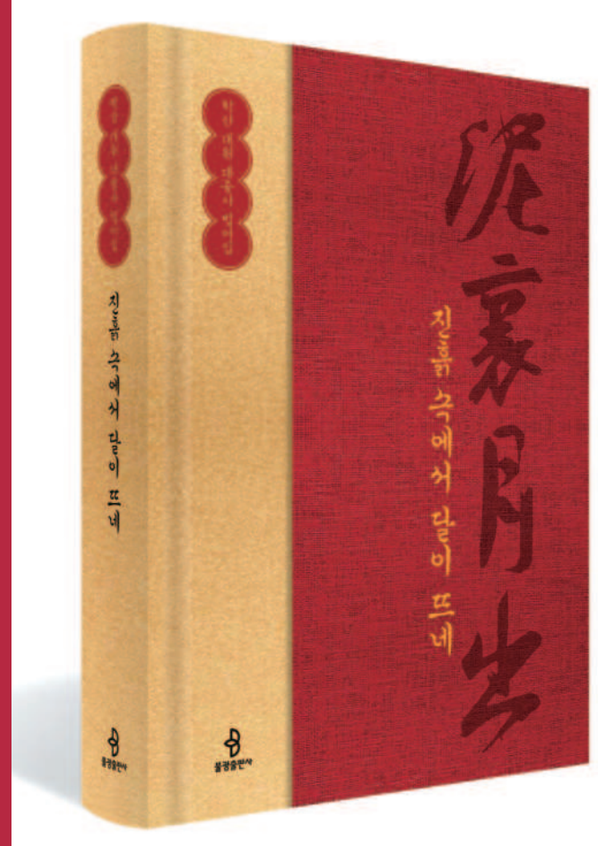
이날 건당식에서 법맥을 이어받은 수법제자는 효념 일봉 스님과 효륜 일암 스님, 효철 일서 스님, 효관 일응 스님, 효우 일홍 스님, 효은 일옥 스님, 효안 법상 스님, 효빈 옥산 스님, 효주 묘각 스님 등 10명. 상진 스님은 수법제자들이 평생 청규로 간직할 수 있도록 각기 계문을 내려 낭독 후 전달하고, 조패와의 · 발을 전했고 법제자들은 호궤합장으로 이를 받아 부처님전에 올려 입실을 고했다.

건당식에 증명법사로 참석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법어에서 육조혜능으로부터 이어진 법맥 전수 일화와 전법게를 간략히 설한 데 이어 부처님으로부터 계승된 정법안장의 무게를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부처님은 가섭존자에 영산회상에서 염화미소로 법을 전한 데 이어 다자탑전분좌(多子塔前半分座, 자신의 자리 반을 내어줌), 열반 후 두 발을 관 밖으로 내어보인 곽시쌍부(槨示雙趺) 총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며 이후 가섭존자가 법을 계승 · 전승하는 과정을 인용해 전법의 참 의미를 짚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전통에 따른 전승식으로 새롭게 법을 이은 스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건당의 전제는 본디 수행을 통해 법을 세워 당간지주를 세우고 깃발을 세워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경지임을 알고 끊임없이 정진해 법을 활짝 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송지희 기자



학산 대원 지음
440쪽 | 양장본
29,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

학산 대원 대종사의 삶과 수행
우리 마음의 어둠을 단박에 끊어내다!

고암, 전강, 성철, 향곡, 경봉 스님 등
근현대 고승과 나눈 불꽃 튀는 법거량의 기록!
그리고 현대인의 막힌 삶을 뚫는 시원한 일갈!

열네 살 출가 후 이어온 70여 년의 구도!
지금은 접하기 힘든 선문답의 진수와 행行으로써 드러난 대선사의 지혜.
그 향기로운 법어를 엮은 우리 시대 진정한 선승의 단 한 권의 책!

"현실에서 (마음) 공부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는 의미도 없고, 어떤 행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학산 대원 대종사 鶴山大元大宗師
1956년 출가하여 오로지 구도求道의 길만을 걸어오신 우리 불교 대표 선승.
1986년 계룡산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다시 세울 때까지 제방의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그동안의 세월의 흔적이 무색하게 지금도 후학들과 나란히 앉아 용맹정진해 오고 계시는 큰스님은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학산 대원 대종사 법어집
진흙 속에서 달이 뜨네
泥裏月出

대불청, 청년·문화포교사업 '본격화'

6월 20일 서울 성북동에 만해평화센터 개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20년 창립 100주년을 기해 청년포교 거점으로 추진된 만해평화센터 불사가 6월 20일 성만됐다. 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20일 서울 성북동 불사현장에서 만해평화센터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만해평화센터는 대한불교청년회의 100년 대계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건물 매입 후 내부불사를 진행해 왔다. 만해평화센터는 1층 교육관과 함께 2층 법당 등 총 20평 규모로 건립됐다.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은 "정각, 정법, 정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청년불자들의 자립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만해 선사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 쇄신을 위한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겠다"며 "지금은 비록 작은 규모의 공간이지만 앞으로 100년 안에는 200평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초석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대불청 지도법사인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경산 원효암 주지 활안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영배 성북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마가 스님은 만해평화센터 개관을 기념해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대불청에 기부했다.

마가 스님은 "대한불교청년회가 만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100년 동안 이어왔다. 3.1운동을 했던 정신을 되살려 심우장 인근에 또 다른 청년포교 거점이

지난해 건물 매입 후에 불사
2층 규모 교육관·법당 사용
"불교 쇄신 보금자리로 가꿔"
주민 개방… 지역 포교 활용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만해평화센터가 포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주길 기원했다.

범해 스님은 "만해평화센터는 만해스님의 기백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청년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하는 수행공간"이라며 "청년포교의 구심


대한불교청년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한 만해평화센터 건립 불사의 개관법회를 6월 20일 성북동 불사현장에서 진행했다.

점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동력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향후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평화센터를 개방하여 문화포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해평화센터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대불청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을 실시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불교의 항일 독립투쟁 역사와 만해 스님의 3.1운동에서의 역할과 해방 전후 불교청년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만해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불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만해스님 따라잡기-만해로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1차 년도 사업으로는 '만해 독립의 길'을 주제로 사업이 진행됐으며, 2차 년도인 올해에는 '만해 구도의길'을 주제로 역사답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2년에는 '만해 문학의길'을 주제로 문학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불청 100년사 발간 작업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진행 중에 있다.

대불청은 "만해 스님의 불교 개혁 및 독립사상을 통일정신으로 전환하여 남북 불교청년들이 통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33관음성지, 새로운 구도 여정 되길"

문화사업단, 전통사찰 순례 회향 증서 수여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23일 2021년 제1차 한국 전통사찰 순례 회향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회향 증서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하는 전통사찰 순례 책자인 '한국 33관음성지'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방문하고, 책자에 해당 사찰의 인장을 모두 찍으면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총 5명이 회향을 마쳤으며, 이 중 3명이 수여식에 참석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나란히 순례를 완료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철, 이금숙 부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불교란 무엇인지, 각 사찰의 문화를 더욱 깊게 알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회향 완료자인 신규태 씨는 "내려놓음과 비움, 힐링의 순간들이었다"며 "나를 오롯이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증서를 수여한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원돈 스님은 "원만 회향을 축하한다. 순례의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자기 안의 부처님일 것"이라며 "이번 회향을 계기로 또 다른 새로운 구도의 여행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2021년 1차 회향식에 이어 8월과 11월에 2차 및 3차 회향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은 지난 2008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 전통사찰 순례를 기획해 지금까지 총 82명에게 회향 증서를 수여했다. 한국 33관음성지 책자 관련 문의 및 회향 완료 접수는 문화사업단 홍보관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 33관음성지 책자에 수록된 사찰은 고운사, 구룡사, 금산사, 기림사, 낙산사, 내소사, 대흥사, 도선사, 동화사, 마곡사, 백양사, 범어사, 법주사, 법흥사, 보리암, 보문사, 봉은사, 불국사, 선운사, 송광사, 수덕사, 신륵사, 신흥사, 쌍계사, 용주사, 월정사, 은해사, 조계사, 직지사, 통도사, 해인사, 향일암, 화엄사이다.

신성민 기자



회향 증서를 받은 순례 완료자들. 사진 왼쪽부터 김기철, 이금숙 부부, 원돈 스님, 신규태 씨.

동국대 발전기금·장학금 전달 잇달아

자승스님 2억 원 '쾌척'해
호산스님 2천만원 기부도
총동창회 등 장학금 전달

동국대 발전과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2일 동국대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건학위원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동국대 법인 발전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전달 직후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오늘 자승 스님께서 희사한 발전기금 2억 원은 학교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2억 원을 기반으로 2000억 원의 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국대 전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호산 스님은 6월 22일 법인 이사회에 앞서 법인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호산 스님은 지난해에도 법인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어 총 5000만 원의 기금을 학교법인 동국대에 전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이 6월 22일 열린 2차 최고위원회 회의서 동국대 법인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 5000만 원을 쾌척한 호산 스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동국대가 세계 제일의 대학이 되도록 구성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박대신)는 6월 18일 비대면으로 (재)동국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동국장학회 장학금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산하 재단법인인 동국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번 경주캠퍼스 수여식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에게 1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장학생들은 장학증서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기부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전순표 (재)동국장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후배 여러분들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사진으로 동국인의 기상을 볼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에서든 동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용맹하게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동문 91학번 동기는 6월 18일 백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81학번 박태영 서현개발(주) 대표와 11학번 박병현 SK임업 대리 부자가 조경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응주 조경학과 91학번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홈커밍데이가 취소되어 교수님과 후배들을 뵙진 못하여 아쉽지만, 후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동국 조경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영 서현개발(주) 대표는 "올해는 제가 동국대 조경학과에 입학한 지 40년이 된 해이자, 11학번인 아들이 입학한 지 10년이 된 해"라며 "선후배 사랑과 학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아들과 함께 뜻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레협, 온라인 지도자 강습회

7월 3일 줌·밴드 통해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가 7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휴식 같은 하루-心쉼'을 주제로 제67회 여름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과 동영상 강의(BAND)로 진행된다.

강습회서는 혜정 스님의 '나의 가능성 알아보기', 전영은 강사의 '종이접기 만다라', 유상진 강사의 '랜선체크', 진성철 강사의 '율동 챌린지' 등이 진행된다.

이번 강습회는 계층법회 지도자, 포교사, 지도법사, 템플스테이 소임자 등 관심이 있는 이라면 모두 참여가능하다. 참가자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불레협 측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회를 지도해 오신 지도자분들을 위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교활동과 지도자들의 마음가짐과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불레협은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1985년 창립된 단체로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와 법회와 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강습회를 년 2회 여름, 겨울 개최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출가자와 종도를 모집합니다.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 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 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는
가족같이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및 총무원 : 무등산 미륵사
· 부설기관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산길7번길 5-11
· 전 화 : 062)234-9834 팩스 062)223-9233
· 손 전 화 : 010-5479-5607 / 010-8623-3010

출가행자 및 종도모집 안내
기 간 : 상시
자 격 : 신체 건강한 남·여 내국인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사상·대행선 수행론 접점 살피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개원 5주년 학술대회 개최

‘불교사상과 대행선’ 접점 논의
천태 오시 통해 대행설법 고찰
설법 곳곳에서 교학사상 확인돼
不二 구조 대행선·묵조선 근원

의상의 ‘일승법계도’ 구조와도 유사
대행선 여래장·여래출현 이중구조
묘공학술상·장학증서 수여식 진행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은 6월 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을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한 종합토론의 모습.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제3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3회 묘공학술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사진은 수상자와 한마음선원 스님들의 기념촬영 모습.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영신 스님


김호귀 교수


박보람 교수


차상엽 교수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 사진)의 수행론과 불교사상을 비교·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6월 19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을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행선연구원의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행선의 수행 방법을 정토·화엄·법화·유식·선 등의 불교사상과 비교해 대행선 수행법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천태 오시와 대행설법 접점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영신 스님은 ‘천태학에서 바라본 대행설법’을 통해 천태학 관점서 대행 선사의 설법을 비교·고찰하고, 대행설법 내 교학 사상을 조명했다. 영신 스님에 따르면 천태의 교상판석으로부터 탄생한 천태학은 오시팔교(五時八教)의 교문(教門)과 삼종지관(三種止觀)의 관문(觀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천태 교문의 중요 교설은 ‘오시팔교’로 대변되는데 ‘오시’는 부처님의 성교(聖教)를 다섯 시기의 설법(화엄시·녹원시·방등시·반야시·법화열반시)으로 나눈 것이고, 팔교는 교설 방법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영신 스님은 천태 오시의 관점으로 대행 선사의 설법들을 분석했다. 〈한마음요전〉을 통해 확인되는 “나라는 개별적이고 사량적인 나만을 알고 포괄적인 대공의 나와 그 나를 있게 한 그 부(父)를 믿지 않고서 어찌 부자가 상봉하기를 바라겠는가. 대공의 부를 믿어야 그 아버지에게 이를 수 있다” “보화가 가득한 창고와 열쇠를 손에 쥐어 주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도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등의 대행 선사 설법은 〈법화경〉 ‘신해품 장자궁자’ 비유와 맞닿는다.

영신 스님은 “대행 선사 설법 중 ‘부자가 상봉하는 것’은 ‘신해품 장자궁자’ 비유에서 떠돌던 궁자가 본국의 장자를 만나는 것으로 제1 회엄시의 취지가 된다”며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방등시의 취지다. 이를 심상체신(心相體信)이라 하여 불자가 대승 불성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설법은 오시의 화엄, 아함, 유마, 반야, 법화·열반 뿐만 아니라 정토 등 불교 교학사상을 두루 수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시의 교판적 관점이나 경전의 상이성 등을 수용해 교학적 해석이나 불교학의 체계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지 않아서 학파나 종파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행선, 묵조선 구조 유사성 높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대행 선사가 주창했던 대행선이 조사 선풍을 계승한 선 수행법 중 묵조선 수행에 가장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행선과 묵조선 수행의 심리적 성격 고찰’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에서 대행선과 묵조선 수행의 심리구조를 비교하고, 두 수행 간의 접점을 찾았다. 그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주인공(主人空)에 대한 자각 △자성본래불에 대한 맡김 △정토에 대한 믿음으로 전개돼 있음을 전제하며 “자신의 주인공이 본래부터 자성불임을 터득하는 것이야 말로 현세의 정토가 실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현재가 성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행선 수행의 골자에 해당하는 주인공 관법은 그 구조와 관련된 수행의 행상에서 이뤄지는 일체 심리가 자성본래불과 정토와 주인공 사이에 순환적으로 호환되는 관계”라면서 “대행선 수행의 심리는 주인공에 대한 자각과 정토에 대한 믿음과 자성본래불에 대한 맡겨놓음의 구조로 성취돼 있다”고 설명했다.

묵조선의 수행은 본래성불이라는 본증자각을 통해 깨친 부처를 닮아가는 심리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본래구족한 자성의 본래성을 자각하는 것이고, 일상의 모든 행위를 본증의 현현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는 비사량(非思量)이라는 무분별의 심리로 구현된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김 교수는 “대행선 수행에서 말하는 주인공과 자성본래불, 정토는 수행의 성취라는 점에서 묵조선 수행서 말하는 좌선에 해당하는 지관타좌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순환적인 수행의 심리가 일체가 둘이 아닌 도리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또한 김 교수는 대행선 수행 심리가 불이(不二) 구조의 바탕서 구현되며 이는 묵조선의 수증관과도 맞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행선과 묵조선의 수행의 근원은 불이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그것이 대사일번(大死一番)으로 거듭나는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며 “불이 구조를 바탕으로 한 대행선의 심리구조는 묵조선 수행에서 수증불이의 수증관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본증 자각과 자성본래불에 대한 수행론도 대행선과 묵조선의 접점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본증에 대한 신뢰는 자성본래불의 수행에 해당하는 대행선과 본증에 대한 자각을 지향하는 묵조선 수행의 접점”이라며 “이는 자성본래불을 추구하는 대행선 수행 방식과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대행선, 여래장·여래출현 섭수

박보람 충북대 교수는 ‘여래장과 여래출현을 통해 본 대행선의 수행관’을 통해 대행선의 수행관이 여래장과 여래출현의 이중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교수는 화엄교학 주요 개념인 여래장과 여래출현의 수행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대행선의 수행관을 살폈다.

박 교수가 두 수행관을 주목한 이유는 “‘나’를 여래의 본성을 안에 갖춘 여래장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연(緣)에 온 법계와 몰록 일어난 여래 출현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거나 부처로 사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어서다.

박 교수는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대행선 수행서 확인되는 여래장과 여래출현, 이 두 가지 흐름을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대행선 수행은 한마음(一心)을 여래장, 불성 등으로 이해하는 부류와 남종선 유사성에 주목해 도불용수(道不用修)와 무수지수(無修之修)를 언급하는 계열이다. 이는 각각 여래장과 여래출현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실제, 대행 선사가 설한 “모든 부처와 중생은 한마음이다. 그렇기에 부처와 중생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성품 중의 불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등의 법문은 여래장 사상의 중생과 부처의 본래적 동일성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다.

“내가 본래 부처이기에 사실 수행이라는 것은 없다. 강한 믿음이면 그뿐이다. 내가 본래 부처라고 아는 믿음이 확고하면 그것이 전부”라는 설법은 여래출현과 맞닿는다.

이 같이 대행 선사의 설법을 살핀 박 교수는 “대행선의 수행에는 여래장의 수행과 여래출현의 수행이 함께한다”고 강조하며 의상이 주창한 화엄교학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상은 〈일승법계도〉를 통해 반시 중 굴곡을 삼승에, 원만한 도안을 일승에 비유하며 삼승이 곧 일승인, 삼승과 일승의 주반상성 구조를 주장한다.

“대행선 수행에서 여래장 수행은 삼승설이고, 여래출현의 수행은 일승설이며, 주반상성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라고 자문한 박 교수는 “주반상성의 관계라면 여래장은 곧 여래출현이 되며, 여래출현은 곧 여래장을 이룬다. 이 경우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곧 수행 자체를 위한 수행이 되며, 스스로 부처임을 모르는 사람이 곧 부처의 현현이 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대행 선사 눈높이 설법 의미는?

차상엽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공과 여래장, 그리고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을 선보였다.

이날 차 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불교사 속 사상적 흐름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며, 불교가 단일하고 순수한 변화하지 않는 사상 체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행선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차 연구원은 “불교의 역사는 ‘무아’를 강조하면 ‘개아’를, ‘자성’을 강조하면 ‘무자성’을, 모든 다르마가 ‘공’이라고 주장하면 번뇌가 ‘공’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등 어느 정도 균형과 평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온 역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상적 흐름과 함께, 시대에 맞는 언어로 법문하고 ‘생활불교’와 ‘현대불교’를 표방하며, 이에 맞는 참선 수행법을 제시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차 연구원은 주목했다.

차 연구원은 “대행 선사는 ‘주인공’이야말로 ‘영원하고 진정한 벗’이며 그 주인공이 머무는 자리가 가고 옴으로 한정할 수 없는 자리라고 지적한다”면서 “이러한 주인공이 바로 한마음이며, 주인공과 한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할바 없는 도리라고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주인공과 한마음 법문의 장점은 여느 선사들과 달리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쉬운 언어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침을 펼쳤다”면서 “이 같은 점이 ‘대중 불교’와 ‘생활 불교’라는 당시의 시대적 화두와 맞물려서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 특징 이해하는 자리”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선연구원과 불교학자, 참가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혜수 스님은 “불교사상은 무한 가능성의 주제이고 대행선 수행론 또한 무한한 가능성의 주제”라며 “4명의 발제 교수께서 천태학, 여래장과 여래 출현, 묵조선 수행 등을 대행선 수행론과의 접점을 찾는 논제를 보면서 대행 선사의 다양한 수행법에 감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3, 4층 강당을 가득 메우던 시절이 그립지만, 이제는 학술대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온라인 참여가 당연해졌다”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언어를 시대에 맞게 바꿔 써야 한다는 대행 선사의 말씀대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연구하고 관심가져 주시는 대중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대행선은 이 시대에 출현한 혁신적인 선풍으로서 그 수행법 또한 전통 수행과는 다른 독특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대행선의 수행법을 여러 불교 수행법과 비교해 봄으로써 대행선 수행법이 전통 불교 수행법을 계승하고 있는 점은 물론 대행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서는 제3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3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제3회 묘공학술상 최우수상에는 김영래(고려대) 박사의 ‘주인공 리더십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우수상에는 차상엽(경북대) 연구원의 ‘티베트 삼애 논쟁 속 중국 화상 마하연의 선사상 재조명’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는 7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각각 수여됐다.

수상자인 김영래 박사의 ‘주인공 리더십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사상이 현대사회를 계도할 리더십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차상엽 연구원의 논문은 티베트 불교의 유명 논쟁인 삼애 논쟁서 중국 선종의 주장을 대변한 마하연 화상의 선사상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대행선연구원의 학술상 심사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가운데 뜻 깊은 학술상을 받으셔서 축하드린다”면서 “수상 학자들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3회 묘공학술장학생으로는 선적 스님(동국대 교육학과 박사수료), 이주민(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수료), 황선미(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이정렬(금강대 불교학과 석사과정) 씨가 각각 선정됐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도 축사를 통해 “오늘 장학금 수상이 불교학을 공부하는 4명의 불교학도가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 앞으로 학문 연구와 정진에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추어 입장 인원을 제한했으며, 대신 학술 대회 현장은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멈추지 않는 포교 원력’ 부처님께 발원

우리절 대법화원, 6월 19일 부처님 점안법회 봉행

10번째 중생 위한 불사 도량
다채로운 프로그램 무료제공
전국서 찾은 불자, 축하 이어
지역민 눈높이 맞춘 포교 전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우리절 대법화원은 6월 19일 부산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 5층 법당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참 나를 찾는 행복이 가득한 절 ‘우리절 대법화원’이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우리절 대법화원은 주지 대풍 스님이 불사한 10번째 도량으로 포교와 불사 원력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우리절 대법화원(주지 대풍)은 6월 19일 부산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 5층 법당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은 점안의식에 이어 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서는 내빈들의 인사말 및 축사 등이 이어졌고, 무공 스님(전 통도사 율원장)이 법문을 통해 새롭게 문을 연 도량의 의미를 대중에게 강조했다.

점안식은 통도사 전 율원장 무공 스님(신해사 회주)의 증명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대풍 스님을 비롯해 승가공동체 회장 도연 스님 및 스님들과 최윤희 前 합참의장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아울러 BTN 불교TV 진심법문과 유튜브를 시청하고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들은 대법화원이 정법 도량으로 성장해 줄 것을 기대했다.

우리절 대법화원은 이날 석가모니부처님과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 등 3존불과 약사여래, 지장보살, 신중탱화 등을 점안했으며 대중들은 부처님의 나투심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합장했다.

대풍 스님은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도심 정법도량으로 성장시킬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마음과 몸의 정화를 위해 산속에 있는 사찰을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서 수행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며 “행복을 바라지만 부처님의 인과법을 모르고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몰라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 이곳 가까운 곳에서 매일 부처님을 만나 업을 녹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라 도량을 열고 포교하기에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계산하고 망설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원력을 다해 부산을 넘어 전국에 살아있는 포교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우리절 대법화원은 법화도량으로 기도와 신행 뿐 아니라 불자들의 삶속에 불교의 가르침이 살아 있는 생활법문 도량을 목표로 한다. 또 불교문화를 통해 다도, 서예, 꽃꽂이, 불화그리기, 노래, 선체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마음 건강과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료 천도재를 봉행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무료급식 등을 통해 자비 나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대풍 스님은 “이 지역은 과거부터 환경이 열악해 많은 지역민들이 어려운 삶을 견디고 고통의 삶을 살아왔다. 지역민에게 맞는 포교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 교실과 불교문화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모든 연령층이 불교를 만나고 편하게 접하도록 돕고 힐링을 선물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천도재와 많은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해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종교 넘어 지역 열린 문화공간으로…

울산 해남사, 6월 21일 ‘문화공간 해남’ 개소식


해남사는 6월 21일 경내 마당에서 ‘문화공간 해남 개소식’을 개최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에 앞장서 온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가 시대에 발맞춘 ‘쉼을 위한 복합문화도량’으로 발돋움 한다.

해남사(주지 혜원)는 6월 21일 경내 마당에서 ‘문화공간 해남 개소식’을 개최했다.

문화공간 해남은 복합문화공간으로 1층 북카페를 비롯해 2층에는 음악과 영화감상, 문화 강연이 열리는 다목적 강연실이 마련됐다. 또 북카페 앞에 조성된 잔디밭 마당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공연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며 예술인들을 위한 후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해남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대인에게 필요한 쉼을 제공하고 종교와 구분 없이 절을 찾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확장돼 의미가 크다.

개소식은 경과보고 및 주지 혜원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내빈들의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개소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시설 라운딩 순으로 이어졌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개원을 준비한 주지 혜원 스님과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울산 해남사는 어려운 식민지 시절에 믿음으로 민족을 위로하며 도심포교 도량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제는 변화에 발맞춰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문화공간이 꽃피는 공간으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경술국치 이후 통도사는 전국에 33개의 포교당을 세웠고 해남사는 그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졌다.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함께한 도량이다. 시대에 발맞춘 포교로 어른 스님들의 뜻을 잇는 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많은 이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 위로를 선사할 공간을 설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문화를 위해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는 혜원 스님께 항상 많은 것을 배운다.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장소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해남사가 위치한 울산 중구 북정동은 원도심으로 문화 혁신 개발 지역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해남사 앞 100m 가량 떨어진 동헌(울산 유형문화재 1호)을 중심으로 시립미술관이 올해 문을 열 예정이며 문화 예술전문도서관이 잇따라 들어선다. 또한 조선시대 울산 객사터를 복원하는 공원이 해남사 앞에 새롭게 조성 될 예정이다. 말 그대로 문화혁신 중심 지역으로 변모된다. 이에 발맞춰 해남사는 종교를 넘어선 문화 도량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시민을 위해 쉼을 제공하는 장소로 발돋움한다는 의지이다.

주지 혜원 스님은 “해남사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된다. 문화중심센터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포교당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창원 안국사 상량식…10월 준공

“불교와 문화로 시민의 쉼터 될 것”


안국사는 6월 17일 안국사 3층에서 상량식을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창원 안국사(주지 법본)가 6월 17일 상량식을 봉행하고 막바지에 이른 불사 소식을 알렸다.

상량식은 1부 불공의식 및 어울림 다올 국악단의 바라춤에 이어 2부 상량식 순으로 진행됐다. 상량식은 내빈들의 헌향과 헌다, 헌화에 이어 경과보고, 인사말, 상량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안국사 주지 법본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국장 스님들과 황동열 홍기건설 대표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안국사는 경남 창원 육군 39사단 호국법당(구, 정심정사)이었으나 육군 39사단이 이전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었다. 조계종과 통도사는 부처님의 도량을 수호하기 위한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 안국사 존치위원회를 구성, 안국사를 지켜냈고 지난 2020년 2월 4일 기공식으로 착공을 알렸다. 2021년 5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김해 바라밀선원, 삼성각 낙성식 봉행

현문 스님 “김해 대표 포교당 되길”


바라밀선원는 6월 20일 경내 5층 삼성각 앞에서 낙성식을 개최했다.

통도사 김해 포교당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6월 20일 경내 5층 삼성각 앞에서 낙성식을 개최했다.

바라밀선원 삼성각은 목조한옥 양식으로 통도사 산령각을 모방하여 건립됐으며 재물과 수명, 복을 상징하는 칠성, 독성, 산신이 봉안됐다. 쌍사자 석등과 탱화로 장엄됐으며 옥상인 5층에 건립돼 도심 포교당 내 산신각을 봉안하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됐다.

낙성식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바라밀선원 주지 인해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이웃을사랑하는모임 회장 혜진 스님, 통도사 박물관장 송천 스님, 정분남 부산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낙성식은 △삼귀의△찬불가(보행행원)△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법어 △주지 인해스님 인사말 △음성공양△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기도를 할 때 대중들은 지극정성으로 하고 봉사와 배려로 삶을 일궈야 소원성취가 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와룡산 운흥사, 제 291회 영산대재


운흥사는 6월 19일 운흥사 경내에서 ‘제291회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운흥사(주지 월암)는 6월 19일 운흥사 경내에서 ‘제291회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영산대재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운흥사 주지 월암 스님, 문수암 주지 이암 스님, 백두현 고성군수, 이승연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 후 법요식,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등이 진행됐다.

운흥사 주지 월암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늦었지만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감사하다”며 “국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 다시 한 번 이 겨레와 강토를 지켜낸 승병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그 뜻을 기리고, 영산재가 한줄기 빛으로 가신 분들의 업적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제 용봉사,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무량수전 내 삼존불상 개금불사 성료 점안법회

'수행도량으로 발전" 발원 방역 지침 준수하며 진행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용봉사는 6월 19일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김제 용봉사(주지 법전)가 무량수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6월 19일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정읍 영주사 두봉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 점안법회는 전북 마하연 승가회,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됐다.

봉의루에서의 법고와 범종타종으로 시작된 이날 점안법회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영산작법보존회 작법이수자 영산 스님을 비롯한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과 마하연 승가회 스님들이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신중작법, 점안의식, 권공, 보위 스님의 승무공연으로 1부 행사가 진행됐다.

김대근 태고종 전북신도회 회장 사회로 진행된 2부 점안법회에는 일광사 승천 스님, 영주사 두봉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영산작법 이수자 영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도홍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했다.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용봉사가 자리 잡고 있는 봉의산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길지에 자리 잡고 있다"며 "무량수전의 완공과 삼존불 개금불사를 마무리하며 주지 법전 스님과 신도여러분들의 원력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지역의 명찰로 거듭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돈독한 신심과 투철한 수행정신으로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한 용봉사 사부대중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모두의 빛이 되고 보살행의 실천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불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사를 마무리하고 회향을 미루다 오늘에서야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이제 용봉사 도량이 더욱 견고해졌고 불자들이 수행의 환경이 조성되어 더욱 발전하는 도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용봉사 주지 법전 스님은 용봉사 불사에 참여한 진영고건축 김동식 씨와 김수상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용봉사 불사에 기여한 한영희, 김정순 불자에게도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김제 용봉사는 1700년대 개산한 이래 구한말을 거쳐 동학혁명 당시 소실됐으나 1927년에 들어 복원됐다.

당시 대웅전, 영산전 등이 조성됐으며, 1988년 전통사찰 제 39호로 지정됐고 2009년 기존 미타전을 무량수전으로 중창됐다.

이날 개금불사를 회향한 삼존불 중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상은 1988년과 1982년 무형문화재 8호 탱화장 구봉 스님이 은행나무로 조성했고 지장보살상은 청동으로 조성한 것이다.

여말선초 나옹선사 위상 살피다

송광사 6월 24일 나옹선사 학술세미나 개최



송광사가 6월 24일 개최한 나옹선사 학술세미나 전경.

고려말 위대한 고승으로 숭앙받고 조선시대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나옹선사의 법맥과 당시 송광사의 위상을 알리는 학술세미나가 6월 24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열렸다.

학술대회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주지 자공 스님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의례, 인사말(보조사상연구원장 김방룡), 환영사(송광사 주지 자공), 축사(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 강건기)에 이어 학술대회를 직접 기획한 현봉 스님의 법문 등으로 이어졌다.

현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말선초는 왕조가 바뀌고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천명하는 전환기였음에도 지공의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여말선초의 불교계는 지공, 나옹의 법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며, "학술대회를 위해 사계의 훌륭한 석학들께서 동참하여 옥고를 발표하고 논하는 마당을 열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세미나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대웅전에서는 '제646주기 나옹선사 추모 다례재' 가 봉행됐다.

송광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지공, 나옹, 무학 삼화상이 모셔져 있는 영단에서 봉행한 이날 다례제는 불교의례에 이어 추모입정, 육법공양, 추모사, 헌화 등이 이어져 나옹선사를 추모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주 호국사 생명 위한 방생법회

진주 호국사(주지 적민)는 6월 17일 진주 남강 천수교에서 '천수교 나불천 방생법회' 를 개최했다. 〈사진〉

방생법회에는 호국사 주지 적민 스님, 적월 스님, 적음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했으며, 법회는 △방생의식△참회진언△여래십호△용왕정근△아미타불정근△불설왕생정토주△보회향진언△원성취진언△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호국사는 산신기도, 용왕기도, 칠석, 중양절 등 주요 기도일 및 행사일을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대중에게 가르치고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해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주지 적민 스님은 "가장 복을 짓는 것이 방생이다. 생명을 풀어주는 자비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참회의 시간이 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교구분담금위 구성, 사찰등급 시행키로

금산사 6월 19일 교구종회 개최

개산대재, 만등불사 등 논의 연등축제보존위 설립도 추진


김제 금산사는 6얼 19일 수현사에서 2차 교구종회를 열고 사찰등급제 등을 논의했다.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는 6월 19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2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종회서는 내년 사찰 분담금 조정을 위한 사찰등급 책정의 건, 개산 1422주년 모악산 문화제 봉행의 건, 만등불사 봉행의 건, '금산사와 호국불교' 학술 세미나 기획안, 전북연등축제보존위원회 설립추진의 건등의 안건을 토의했다.

교구장 일원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6월 말까지 내년 분담금 조정을 위한 사찰등급 책정안을 준비해야 돼 불가피하게 종회를 열게 됐다"고 종회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 일원 스님은 옥천암 경호 스님, 영월암 정효 스님, 불주사 덕운 스님, 덕음암 진선 스님에게 주지임명장을 전달했다.

제17교구 사찰분담금위원회는 당연직에 교구장 일원 스님, 총무국장 화평 스님, 재무국장 여찬 스님, 위촉직에는 전주완주지역 원혜 스님, 군산익산지역 보현 스님, 남원 승묵 스님, 무 · 진 · 장 기타지역 광진 스님, 승가회재무 무여 스님으로 구성됐다.

개산대재는 10월 16일 봉행키로 결의했으며, 금산사 복지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만등불사도 같은 날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금산사와 호국불교에 대한 세미나를 가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전북 연등문화축제보존위원회(가칭) 설립 추진의 건에 대한 토의는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명실 공히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등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전라북도봉축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동련, 제14회 연꽃문화제 개최


동련 광주지구는 6월 19일 제14회 광주 연꽃문화제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60여 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어린이들 문예잔치인 광주 연꽃문화제가 회향됐다. 동련 광주지구(지부장 지장)는 6월 19일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제14회 광주 연꽃문화제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글짓기 14명, 그리기 69명, 단체 1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대표 동천 스님, 동구청소년수련관장 소운 스님, 지장 스님을 비롯해 60여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행사는 '병원, 감사, 내가 만약 ○○이라면' 주제로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24개 단체와 개인 36명 등 그리기 403명, 글짓기 59명 등 총 462명이 참여해 경합을 벌였다.

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한 글짓기 박희연, 그리기 마준혁 군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어 특별상 강다인, 김사랑, 강다인, 강다윤, 최우수상 신영서, 한주희, 우수상 나성호, 안승혁, 임재성, 최서희 등이 수상했다.

행사를 주최한 지장 스님은 "오늘 수상식 자리는 함께하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수상한 친구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코로나19 시대에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야 한다"며 "내년에는 천진불들의 고운 눈빛을 하나하나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산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부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부장 석지현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도 만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일명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원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진공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담 (이정민)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종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쇼소인 문서에 불경 필사본 발견

일본 最古 〈대승현론〉 사본 발견돼

박영빈 객원기자



새롭게 발견된 〈대승현론〉 사경. 다른 문서의 이면지로 사용됐다. 사진출처=요미우리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타임캡슐로 불리는 일본 토다이지(東大寺)의 보물고, 쇼소인(正倉院)에서 고대 불경 필사본들의 단간들이 발견됐다. 해당 필사본들은 쇼소인 문서라고 불리는 문헌들 사이에서 이면지로 재활용된 필사본들 사이에서 발견됐다. 이중엔 중국의 길장대사가 저술한 〈대승현론〉도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을 6월 20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이 특별 보도했다.

쇼소인은 일본 나라시에 소재한 토다이지 경내의 보물고다. 이곳은 토다이지를 창건하고 대불을 조성한 쇼무천황의 사후, 아내인 고묘황후가 천황의 명복을 빌며 생전 천황의 애장품들과 자신의 귀중품들을 756년 왕실 보물고로 경내에 건립했다.

이후 8세기를 중심으로 일본 왕실과 귀족들이 바친 다양한 공예품과 문서 등 고대의 보물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이중 불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헌군을 쇼소인 문서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신라시대의 행정문서인 '신라촌락문서' 가 다른 사경의 배접지로 쓰인 것으로 유명하다.

1만 점이 넘는 쇼소인 문서들 가운데, 필사나 작성에서 다양한 이유로 파기된 문서와 이면지나 배접지로 재사용 된 것들이 많은 것이 확인되면서, 2년 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사용된 문헌들에 대한 조사와 판독 중 중국 수나라 때의 고승으로 삼론종의 조사인 길장(吉藏)대사의 〈대승현론(大乘玄論)〉이 발견됐다. 〈대승현론〉은 길장대사 만년의 저술로 삼론종의 정수를 간명하게 밝히는 개요서다.

발견된 〈대승현론〉의 단간은 세로 29.1cm, 가로 57.6cm로, 내용은 삼론종에서 강조하는 중도(中道)를 설명하는 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필사자의 실수로 보이는 공백과 문장의 반복 등이 곳곳에 보이며 사경지의 좌측 상단에 파기를 뜻하는 '파(破)' 자가 기입되어 있다.

조사를 담당한 스기모토 카즈키 박사는 "이번에 발견된 〈대승현론〉은 사경 중에 실수로 파기된 사경지가 다른 행정문서의 이면지로 활용된 것이다. 이면지로 활용된 문서의 기록에 746년 3월이라는 기록이 남은 것에서 사경은 동시대, 혹은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진행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파기된 경전이나 불전을 이면지로 사용한 문헌이 적지 않은 만큼, 다른 문헌들도 확인하여 새로운 사본들이 없는지 밝히겠다"고 전했다.

쇼소인 문서 조사팀은 "종이와 사경 방식 등이 토다이지가 소장한 나라시대의 사경들과 일치하는 것에서, 토다이지 사경소에서 필사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시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사경사업의 일환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고대 사경들 가운데 706년에 필사된 길장의 저서인 〈정명현론(淨名玄論)〉이 존재하기에 이 저술도 아마 함께 전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대승현론〉의 최고(最古)사본은 13세기경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발견으로 전래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팀과 함께 필사본을 확인한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의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는 "길장의 저술은 나라시대를 잇는 헤이안시대의 천태종, 진언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나라시대의 사본이 전하지 않았기에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대승현론〉 사본이 나라시대의 것이 확실하다면 고대 불교사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로부터 사원 지키는 '소방 승려'

벤타나 보호구역 화재, 스님들 산불 대비 나서



지난 17일 몬트레이 카운티 로스 파드레스 국유림에 벤타나 야생동물 보호구역(Ventana Wilderness)에서 발화한 산불 '윌로우 파이어' 로부터 사원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소방 스님' 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 KTLA는 6월 22일(현지시간) "7명의 승려들이 빅서(Big Sur) 지역 인근 타사하라 젠 센터(The Tassajara Zen Mountain Center) 주변의 수풀을 깎고, 건물 주변에 습기를 유지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밤새도록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벤타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부터 번지고 있는 산불로부터 사원을 지키기 위함이다.

해당 선명상센터장은 "1마일(약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코앞 거리에 산불이 났는데 사원까지 번지지 않은 것은 하늘이 도왔다"고 했다.

윌로우 파이어로 인해 아로요세코 캠프장 북쪽에서부터 아나스타샤 캐년, 카르멜 밸리 서쪽, 타사하라 동쪽 지역 등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발화 지점 인근에는 각종 멸종동물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사하라 젠 센터 등 문화사적지가 위치해 있다.

인근 지역민들은 타사하라 젠 센터로 대피했다.

타사하라 젠 센터는 2008년 화재 이후 승려들의 소방 교육을 실시했다. 스님들은 전문 소방관들로부터 매년 소방 훈련을 받았다. "다른 승려들과 똑같이 수행 생활을 하면서 '소방 스님' 으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스님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센터장은 설명했다. 센터장에 따르면 스님들은 타사하라 젠 센터 외에도 지역 소방관들을 도와 화재 진압이 필요한 곳곳을 누빈다.

한편 윌로우 파이어는 지난 17일 발화해 22일까지 약 3000에이커 면적을 태웠다.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불길을 잡기 쉽지 않았다고 지역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지역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현대미술로 불교를 표현하다

日현대미술가 전시회
6월 21일 아사히신문 보도



전시중인 작품 앞에 선 묘쇼 스님. 사진출처=아사히신문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포교에 이용하려는 다양한 활동이 교계 각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 현대미술가인 스님이 설치미술을 통해 불교를 새롭게 선보이는 시도를 보여 화제다. 6월 2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은 현대미술을 포교에 활용하는 스님의 작품을 소개했다.

일본 카가와현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 지센지(慈泉寺)의 카타오카 묘쇼 스님은 지난 19일 부터 첫 개인전 '꽃은 지지 않는다' 를 열고 있다. 묘쇼 스님은 "코로나 시국에서 일상생활에 변화가 이어지는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행복의 형태를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회의 개최 의의를 전했다.

스님은 첫 개인전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현대미술이나 일러스트 등 미술작업을 이용하여 포교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실제 종단에서도 법문과 사회활동으로 불교를 전하는 '포교사' 법계를 정식으로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스님은 "집안이 사찰이긴 했지만, 오빠가 절을 이을 것이기에 출가에 부담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다. 본래 미술을 좋아했고, 전통공예의 장인이 되고 싶어 교토의 예술대학으로 진학했었다"며 자신의 경력을 전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중 스님은 "장인은 선인의 철학과 전통을 계승한다. 어느 날, 출가자가 되는 것도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과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학을 중퇴하고 곧바로 출가한 계기를 말했다.

특히 스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시절, 등교를 거부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당시 주지였던 할아버지가 '모처럼 쉬는데, 놀지 않는 건 아깝다' 며 주변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격려해 주었다. 체면이나 상식에 맞추는 것이 아닌 상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가를 전하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접근법이라 생각한다"고 현대미술을 응용한 포교활동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 전시 역시 지역 상점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폐점한 은행을 전시장으로 개조하여 작품들을 전시했다. 3부로 구성된 전시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설치미술로 마련됐다.

먼저 1층의 첫 전시 공간은 촛불을 밝히고 꽃을 형상화한 작품들로 사찰의 법당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꾸며졌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간단한 법문을 듣고 마음을 정돈한 후 이어지는 작품들을 감상하게 된다. 2부 전시는 개개인이 가지는 '역사' 를 형상화한 전시,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은 2층 전시공간의 벽에 붙어 있는 다양한 메시지가 적힌 꽃잎모양의 카드를 1장씩 가져가게 된다. 스님은 전시내용에 대해 "사람이 스러지더라도 그 역사와 나아가는 미래는 이어진다는 내용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진출처=CNN

'대불도 코로나19 방역'

일본의 한 대불상에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씌우는 작업에 한창이다. 해당 불상은 후쿠시마 현의 호코쿠지 마즈 베츠인(Houkokuji Aizu Betsuin) 사원에 있는 높이 57m 규모의 관음보살상. 노동자 4명은 3시간에 걸쳐 이 관음보살상 얼굴에 세로 4.1m, 가로 5.3m 크기에 35kg 무게로 제작된 분홍색 마스크를 씌웠다.

이 사원은 불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는 취지로 이 같은 퍼포먼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대불에 마스크를 씌우게 된 결정적 계기는 따로 있다. 사원 관계자는 "지난 2월 지진으로 인해 대불의 안면 부분이 훼손된 후 복원을 위한 회의에서 이러한 마스크 제작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씌워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3~6/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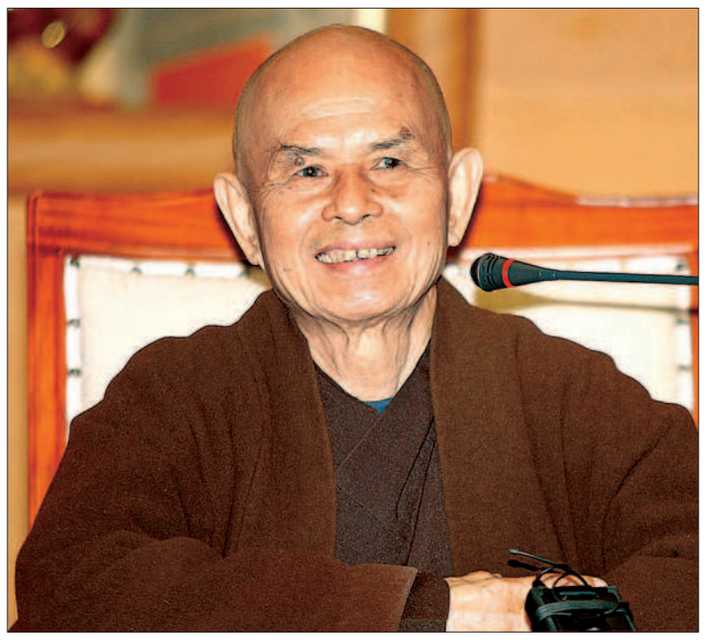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현실은 영원이다 : 지광스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법문	지광스님	위로
2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자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4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프리스틴 마인드 : 궁극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조촌 명상 안내서	올갠 초왕 린포체	운주사
6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7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 돌 모둠	운허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9	공과 윤리 : 반야 중관에 대한 오해와 이해	김성철	오타쿠
10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행복하려면 두 가지면 충분…호흡과 미소"



모든 발걸음 마다 평화
틱낫한 지음
김윤종 옮김
불광 펴냄
1만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책 1992년 미국서 처음 발간…한국서 세번째 출간
간단하면서도 실질적 도움주는 가르침 전달 큰 장점
'앎이생기면 행동 뒤따라야만 한다' 책과 삶에서 실천

이 책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는 1992년 미국서 처음 발행됐다. 출간 후 무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한 해도 '아마존 닷컴' 베스트셀러 목록서 빠진 적이 없다. 영어로 '마음챙김'이나 '명상'은 물론 '자기계발' '이해' '평화'라는 키워드와 함께 책(Book)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꼭 읽어야 할 목록(must read)'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런 명성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두 차례나 번역 출간된 바 있다. 2000년에는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2015년에는 〈틱낫한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하지만 두 번째 출판 이후 저작권 기간이 만료돼 3~4년이 넘는 기간 '절판' 상태에 있었다. 이에 불광출판사서 새롭게 저작권 계약을 하고 새 번역자를 구해 새롭게 펴냈다.

미국서 애초 출판됐을 때의 제목을 그대로 살렸고 번역어도 새롭게 고쳤다. 이전 책들은 'Mindfulness'를 '알아차림'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했으나, 이번 책에서는 이미 국내에 정착돼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마음챙김'으로 수정했다. 또한 평소 평화롭고 따뜻한 틱낫한의 목소리에 맞춰 본문은 모두 경어체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인의 베스트셀러가 된 건 따뜻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질적 도움을 주는 가르침들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일상에 악센트 몇 개만 추가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저자인 틱낫한 스님〈오른쪽 사진〉이 이 책서 강조하는 악센트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호흡, 두 번째는 미소다. 우선 호흡 할 때는 숨을 들이쉴 때 '들이 마시며 내가 숨을 들이 마시고 있음을 안다'고 (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쉬며, 내가 숨을 내쉬고 있음을 안다'고 (속으로) 말한다. 이것조차 복잡하다면 그냥 '안(in)', '밖(out)'이라고만 말해도 충분하다. 호흡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차지 않도록 돕고,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할은 '현재'가 아니다. 지나간 과거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뿐이다.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호흡을 계속 붙들어 매면 호흡은 점차 평화롭고 온화해지며, 이에 따라 몸과 마음도 평화롭고 온화해진다.

이런 연습에 거창한 명상실이나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틱낫한 스님은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그리고 길을 걷다 빨간 신호등이 보이거나 종소리가 들릴 때면 잠시 멈춰 이렇게 호흡을 하라고 권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호흡이 단지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넘겨짚지는 말자. 주의 깊은 호흡과 명상을 40년, 50년 수행해온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수행한다.

틱낫한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미소다. 웃음은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준다. 간단하게라도 혹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연습 해야 한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아주 옅어서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얼굴에 있는 수백 개의 근육을 이완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마치 기쁜 척 표현하기 위해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정말로 즐거울 때 보이는 신경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틱낫한 스님이 강조한 호흡과 미소는 이후 '마음챙김' 명상을 안내하는 책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1992년, 스님은 이미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어떤 '마음챙김' 관련 책들도 이 책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앎이 생기면 행동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말이 책이나 삶 속에서 잘 실천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이웃에 대해 어떻게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는 '호흡'과 '미소'에 바로 연결돼 있다. 때론 보듬듯, 때론 나지막한 목소리를 칭찬하는 듯한 그의 이야기는 어떤 감동적인 에세이들보다 울림이 크다. 나와 가족을 넘어 공동체로 향하는 그의 시선도 따뜻하다. 반전 운동, 난민 구조 등의 이유로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던 그의 삶이 그걸 증명한다.

상추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상추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필 뿐이다. 물을 더 주어야 할지, 아니면 햇빛을 덜 쏘여야 할지….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난을 앞세운다. 하지만 마치 상추에게 그러하듯 이런 비난에는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도 없다. 추론과 논쟁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비난하거나 싸울 일이 아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화를 내기보다는 '치유'에 필요한 것들을 살피면 된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에서 이런 단순하고 명확한 명제를 잊고 살아간다. 이 책은 이렇게 일상서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매뉴얼을 담은 마음 따뜻한 에세이다.

"계율 있어야 자유 있다"…초심자 위한 바른 수계 길잡이



수계 50문답
담앤북스 펴냄
법고문화편집부 편저, 역주 정현
1만 5천원

이 책은 봉녕사 승가대학 조교수로 있으면서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 3년에 재학 중인 정현 스님이 대만의 법고문화편집부서 2017년에 발간한 〈수계50문〉을 번역 출판한 책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계율 관련 문제 50개를 제시해 계율을 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간단하면서도 핵심 위주로 정리한 수계 관련 입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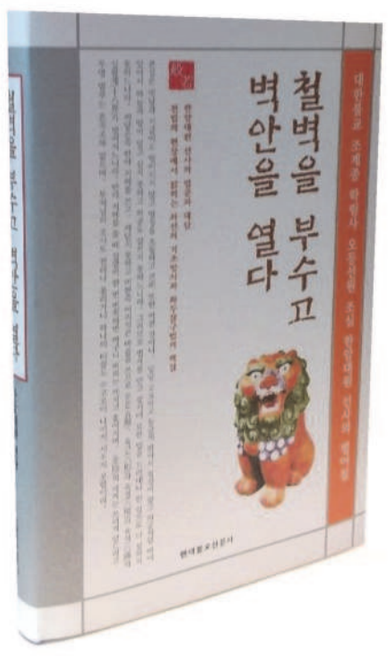
불교서 깨달음에 이르려는 자가 반드시 닦아야 할 세 가지 수행을 계 · 정 · 혜라고 한다. 계(戒)는 계율을 지켜 실천함을 말하고, 정(定)은 마음을 집중 · 통일시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혜(慧)는 미혹을 끊고 진리를 주시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불교를 바르게 믿고 수행하는 불자라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닦아야 한다. 요즘 불자들은 정(定)과 혜(慧)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만, 정작 이것의 기본이 되는 계율을 지켜 실천하는 것에는 너그러운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 · 정 · 혜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올바른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진정한 불자가 될 수도 없다. 그래서 계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계 받고 불자 되기, 계를 배우는 방법, 지계의 의지 견고하게 세우기, 청정한 마음 지키기 등 총 네 개의 큰 물음 속에 총 50개 문답으로 이뤄져, 각자가 궁금한 수계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책은 법고문화편집부에서 기획한 〈불교공부입문 Q&A 시리즈〉 중 하나로서 수계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계율 관련 문제 50개를 제시해 계율을 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간단하면서도 핵심 위주로 정리한 입문서이다.

성엄 스님은 출가 초기부터 계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첫 폐관수행을 마치고 가장 먼저 〈계율학강요〉(1978)를 저술한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다. 이후 법고산사에서의 수행과 대중교화 과정서도 계율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스승의 지계사상이 후학들에게 이어져 이 책 한 권에 압축돼 있구나 싶을 정도로 내공 있는 책이다. 계율 입문서이면서 어렵지 않고 짧은 글이지만 강한 설득력을 담았다. 무엇보다 포교 현장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서인 것은 이 책의 장점이다. **김주일 기자**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황금의 맥을 가리켜 보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읜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싣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오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십팔계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 번 번쩍하면 마구니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 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이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본문 중에서



한암대원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 고봉 · 석릉 · 관응 ·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混海)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 동화사 · 해인사 · 불국사 ·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古庵)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충남 공주의 학림사 오등선원.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하면서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공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법맥을 따라 올라가면 석가 세존에까지 이르겠지만 푸른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의 오늘을 밝히고 있는 법맥 중에서도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은 조실 스님으로 인하여 중요한 한 가지[技]를 차지한다. 스님은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라고 깨달음의 기쁨을 읊으셨다.

* 한암대원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350쪽 | 값 1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전화 042)825-1724, 02)2004-8253

학림사 오등선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 전화 042)825-1724

불국사서 볼 수 없는 불국사 단청

이운정 불국사 대웅전 단청문양 모사전

'꽃비, 오색빛으로나리다' 展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법화경〉의 꽃비(雨花)를 재현한 불국사 대웅전 단청을 갤러리에서 만난다.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 별에서 열리는 불모 이운정의 불국사 대웅전 단청문양 모사전 '꽃비, 오색빛으로 나리다' 에서 볼 수 있다.

이 작가는 2008년 전통문양 부채전 이후 두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대량머리초, 반자초, 순각판 등 불국사 대웅전 내부의 단청을 모사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세월로 인해 희미해진 단청에서 사라진 빛깔과 문양을 찾아내 기와와 비단, 나무에 옮겨 그렸다. 마치 천년의 시간을 되돌린 듯 되살려낸 작품들은 흐려진 렌즈의 초점을 맞춘 듯 선명하게 단청 본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불국사에서 볼 수 없는 불국사 단청을 볼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동안 갤러리는 불국사 대웅전이다.

"불국사를 찾는 사람 대부분은 청운교 백운교를 보고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고 나면 불국사를 다 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불국사의 가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보고 가야할 것으로 저는 대웅전 내부 단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사찰의 단청들도 모두 아름다움과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불국사 대웅전의 단청은 특히나 아름답고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의 구성 등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단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다는 게 많이 아쉬웠죠."

이 작가가 이번 전시를 열게 된 이유와 취지다. 이 작가는 불국사 대웅전 단청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다. 논문의 목적은 조선 후기의 전통 단청문양의 특색을 파악하고, 18세기 사찰단청의 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단청기록이 후대

대웅전 내부단청 모사 30여 점 전시
원형유지 내부단청 미술사적 가치커
〈법화경〉의 영산회상 현실화 표현해


화반 용면문.

까지 이어지는 전통 단청의 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논문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이 작가는 불국사 대웅전 내부 단청의 가치를 알게 됐다.

불국사 대웅전 외부 단청은 퇴락이 심해 근래에 새롭게 재현됐다. 하지만 대웅전 내부 단청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량 머리초(좌)와 어간평방 머리초.

사찰단청의 의미는 성스러운 조형건축물에 장엄의 기능을 더하여 불국토의 세계를 구축하는 공간으로서, 조형적 예술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진 것이다. 불국사 대웅전 단청세계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석가모니불 영산회상 설법 장면에서 불국토세계의 모습을 현실화하여 표현했다. 건물 천장부에는 연화장세계의 상징인 연화문을 시문했고, 설법 중 내린 꽃비를 다양한 꽃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엄했다.

그 중 대량머리초는 다른 사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용면과 용실이 겹장구머리초의 형태로 시문됐다. 천장의 반자문양


화반 용면문.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단청
석가 · 다보탑과 같은 가치 지녀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위해 전시"

은 채색조각 장식으로 입체적이고 화려하다. 전개시켜 나타낸 문양은 6종류의 기본 문양으로써 색상은 조금씩 다르게 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을 주는 특징을 지녔다.

대량, 창방, 평방, 뜬창방의 머리초 문양의 특징은 주문양과 둘레장식, 실장식이 매우 화려하게 구성됐다. 특히 녹실을 돌린 번엽이 많이 사용됐다. 황실에서는 먹선을 한 번 더 쓴 것을 사용했고, 부재마다 다르게 사용된 금문 장식들은 매우 세밀하게 장식됐다. 이는 동시대의 다른 사찰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양으로서 불국사 대웅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단청문양이다. 사용된 안료와 색상을 통하여 조선 후기 단청의 색상을 유추하여 18세기 사찰단청의 회화적 기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독창적이면서도 회화적인 단청의 특색 또한 찾을 수 있다.

불국사는 신라 천년 역사의 걸작으로, 건축구조와 종교예술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적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하여 1995년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전시는 그런 불국사의 여러 가치 속에서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대웅전 내부 단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국사 단청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갤러리에서 먼저 불국사 대웅전의 단청을 보고 불국사를 찾는다면 시절과 시절을 다녀오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모 이운정 작가는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불교미술 전공)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18세기 불국사 대웅전 내부 단청에 대한 연구' 를 썼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단청 1157호, 문화재수리기능자 화공 4568호이며, 전통문양지도사 1급 보유자다. 한국전통문양교육원 원장이며, 아도문화진흥원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단청 외래교수다. 두 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저서로 〈금난 이운정의 사불 사경 시리즈 1, 2권〉, 〈금난 이운정의 선따라 마음따라-연꽃〉, 〈금난 이운정의 사불 시리즈- 아미타불 그리기〉가 있다. 1588-4925.

국립경주博 황룡사실 임시 휴실



6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면진 진열장 제작 · 설치 공사
'고대사원실' 신설 · 일부 개편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6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라미술관 2층 '황룡사실' 〈사진〉을 임시 휴실한다.

'고대 사원실' 신설을 위한 면진진열장 제작 설치 및 2층 계단 홀의 전시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신라역사관으로 이전한 '국은기념실' 공간과 '황룡사실' 을 통합하여 '불국토에 대한 신라인의 염원' 을 주제로 한 '고대 사원실' 을 신설함과 동시에 2층 계단 홀 및 1층 '불교조각실' 의 일부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향후 신라 불교문화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따뜻하고 세련된 공간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신라미술관 2층을 제외한 신라미술관 1층 및 소리체험관, 신라역사관, 월지관, 신라천년보고, 옥외전시장, 특별전시관은 정상 운영한다.

신라의 찬란한 미술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신라미술관은 2002년 5월 개관한 이래 2008년의 전시환경 개선, 2013년과 2014년의 일부 개편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신라미술관은 1층 불교미술 1실과 불교미술 2실, 2층 황룡사실 3개 전시실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미술품 등 약 550점을 전시하고 있다.

황룡사실은 신라의 대표적인 호국불교 사찰이었던 황룡사 터에서 출토된 수 만 점의 문화재 가운데 대형 망새(치미)를 비롯한 기와, 사리갖춤, 불상 등 대표작 2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황룡사를 복원한 축소모형으로 가람배치의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여 황룡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박재완 기자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두 다리는 잘렸지만
희망마저 잃을 수 없어요

스리랑카 출신 이주민 노민다씨 쓰레기 분쇄기 수리 중 두 다리 잘려
고액의 양쪽 의족 비용에 또 좌절… 통증과 사고 악몽에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2-725-701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글로벌 한국불교 조명 연구·강의 '본격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수주

한중연서 5년간 50억 지원
불교 통해 韓 국제성 조명
연구·온라인강좌 제작진행
국내외 최고 전문가 참여해
"한국불교 세계화 일조기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불교적 시각으로 한국의 국제성을 조명하는 연구와 강의를 추진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지원하는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에 선정됐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향후 5년 동안 50억 원(연간 10억 원)을 지원받아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 사업을 수행한다.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류를 이은 한국학의 온라인 세계화를 위해 기획된 대규모 학술사업이다. 10개 선정 사업팀의 주제별 영역은 △한국사 △한국어문 △한국 철학과 종교 △한국의 경제와 외교 등이다. 이중 특정 분야로 들어간 것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철학과 종교영역)가 유일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와 고려대가 각 2개씩 선정됐다. 동국대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는 각 1개 사업단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술원 내에 'K학술확산연구소'가 신설된다. 소장은 김종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맡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K학술확산연구소'는 향후 5년간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세계화를 위한 온라인 강좌 50개(강좌당 100개 강의)를 제작하게 된다.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는 △1단계(1~3년) Glocal Korean Buddhism: Locality and Globality △2단계(4~5년) Post-glocality: Now and Future in Korean Buddhism을 아젠다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와 전통(1년차) △언어와 문화(2년차) △인물과 사상(3년차) △사회와 일상(4년차) △세계와 미래(5년차)를 주제로 연간 10개씩, 총 50개의 온라인 MOOK 강좌가 개설된다. 이 강좌는 정부의 K-MOOK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다. 한국불교를 아프리카에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간 10개의 강좌(60분 100개 강의)는 한국불교를 처음 접하는 세계 유수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나아가 일반인들을 위해 △초급(3개) △중급(4개) △고급(3개)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 각 전공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 교수진이 한국어나 영어, 기타 모국어로 강의를 한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한국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불어로 된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또,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나 테스트 문제도 가이드북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연구책임자 김종욱 교수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지역적 고유성과 함께 불교의 장점인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전 세계 학계의 역량을 모아 특수와 보편이 어우러진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를 발굴하고 그것을 500개 강의에 담아 전 세계에 한국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불교의 미래 전망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되면 지구적 관점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어떤 비전을 갖는지 누구나 공감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기반을 넓히고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는 세계인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은 "이제 비로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진정으로 한국불교를 세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한류 열풍에 이어 앞으로 한국학 그중에서도 한국불교의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미디어 속 붓다 전기는

최원섭 교수, 동국대 불문사硏 학술대회서 살펴

부처님의 일대기는 신화와 역사 사이에서 공간과 시대를 넘어 전래됐다. 현대 미디어 속 붓다 전기를 조명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최원섭 동국대 경주캠퍼스 외래교수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이 6월 18일 불교의 전파경로와 붓다전기(佛傳)의 변용 양상: 붓다전기의 한국적 형성화 과정의 전(前) 이해 Ⅱ'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현대 미디어 속 붓다 전기들의 표현 양상을 살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근대기 붓다 전기는 팔상성도 중심의 전통적 붓다관과 근대적 붓다관으로 구분된다. 근대적 붓다관이 확인되는 저술은 '가찬 석존전' '인신 불타의 석존전 대요', '석존일대가' 등인데, 이들에서는 전생담이나 신이한 부분이 삭제된 인간으로서의 붓다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 미디어에서 확인되는 붓다 전기의 예로는 장호일 감독의 영화 〈석가모니(1964)〉와 조계종 포교원의 의뢰로 2008년 제작돼 KBS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붓다〉다. 최 교수는 영화 〈석가모니〉가 근대적 붓다관을 담아내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붓다〉는 전통과 근대적 붓다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봤다.

영화 〈석가모니〉에 대해 최 교수는 "인간적인 붓다의 모습을 강조하며 역사물로서의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근대적 붓다관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헐리우드 대작 영화 분위기를 노리는 상업영화라는 측면에서 불교적 주제의식이나 전기의 표현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고 평가했다.

애니메이션 〈붓다〉에 대해서는 "한국 불교신자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붓다 전기의 다소 신이적인 장면을 구현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신비로운 모습이나 기적처럼 보이는 장면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남방상좌부불교에 있어 붓다전기의 형성화와 그 특징(황순일, 동국대) △보여주고 들려주신 붓다 고사 △돈황본(八相變) 고찰(정광훈, 금강대) △한국 불교에서 붓다전기 표현의 특징-팔상도를 중심으로(석길암, 동국대 경주)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현존 유일 초대형 삼신불상 '국보' 승격

화엄사 목조삼신불좌상 지정
울진 불영사 불영 등 보물로
회암사지사리탑 보물로 승격



국보된 화엄사의 삼신불좌상. 사진 왼쪽부터 석가모니불(왼쪽), 비로자나불(주불), 노사나불(오른쪽)의 모습.

현존 유일 3m 초대형 삼신불상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보물 제1548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지정하고, '울진 불영사 불연',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송시열 초상'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이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을 의미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이다. 변상도나 사경 등에는 종종 보이지만, 조각상으로는 화엄사 사례가 유일하다. 삼신불좌상은 지난 2008년 보물로 지정돼 17세기 불교사상과 미술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3구의 좌상은 모두 3m가 넘는 초대형 불상으로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 1635년(인조 13) 당대 유명한 조각승인 청헌(淸軒)과 응원(應元), 인균(印均)을 비롯해 이들의 제자들이 만든 17세기의 대표적 불교조각이다.

발원문에 의하면 전국 승려집단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역임한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의 주관 아래 선조(재위 1567~1608)의 8번째 아들 의창군 이광(李珖, 1589~1645) 부부와 선조의 사위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1588~1644) 부부 등 다수의 왕실 인물과 승려 580여 명을 포함한 총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했다.

이 삼신불상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조각승 집단인 청헌파와 응원·인균파가 참여한 만큼 표현에서도 각 유파(流派)의 조각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승격되는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청헌, 응원, 인균과 제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완성한 기념비적인 대작(大作)"이라고 평가했다.

보물로 지정된 '울진 불영사 불연'은 1670년(현종 11) 화원(畵員)으로 추정되는 광현(廣玄), 성열(性悅), 덕진(德眞) 등이 참여해 조성한 2기의 불교의례용 가마다.

보물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1656년(효종 7) 만들어진 불상으로, 당시 제작된 나한상 중 수량과 규모면에서 가장 큰 작품이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6월 2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과 전북도 유형문화재 '무주 한풍루'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이하 사리탑)은 조선 전기 왕실에서 발원하여 건립한 진신사리탑으로 규모가 장대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사리탑의 형식과 불교미술의 도상, 장식문양 등 왕실불교미술의 여러 요소를 알 수 있는 귀중한 탑이다.

문화재청은 "사리탑의 규모, 치석 상태, 결구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당대 최고의 석공이 설계·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화재는 조선 전기 석조미술의 정수이자 대표작으로 역사, 학술, 조형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운장암 금동보살상 면면 살핀다

한국미술사연구소, 6월 25일 학술대회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은 지정 당시 철불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 금동제로 제작됐음이 확인돼 명칭이 변경됐다. 조성 시기도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보지만, 양식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미술사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운장암 금동보살상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양식과 중수자, 복장품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도상학과 수조각승 석준의 중수 연구'를 기조발표하며, 고승희 동국대 교수가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복장품 연구'를, 한병일 한국문화재연구원장이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보존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각각 주제발표한다. 주제발표의 토론자로는 안희숙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동국대 강사)과 주수완 우석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므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4

▶ **25회 예고**
아쇼까는 밤에 꾸꾸따라마 사원에 머물고 있는 우빠굽따를 찾아간다. 우빠굽따는 설법을 잘하는 수행자인데, 아쇼까에게 옛 왐사국의 수도 꼬삼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쇼까는 자애로운 여인 사마왓띠에게 흥미를 느낀다.



아쇼까 진압군, 꼬삼비에 도착

까시국 바라나시 강가강 모래밭에서 1박을 한 아쇼까 진압군은 짙은 안개 속에서 아반띠국 웃자인으로 향했다. 까시국 왕이 선물한 비단옷은 진압군을 이끌고 있는 선봉대장에게 주어버렸다. 까시국에서 아반띠국까지는 들판과 언덕이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와 구릉의 땅이었다. 크고 작은 숲들은 대부분 언덕에 있었다. 아쇼까는 사라나무숲을 발견하고는 전령을 시켜 선봉대장을 불렀다. 선봉대장은 20대 중반의 장수로 용감하고 날랬다.

"대장, 행군을 멈추시오. 지친 군사들을 숲에서 쉬게 하시오."

"부왕님, 조금만 더 가면 꼬삼비가 나옵니다. 꼬삼비에 가면 군사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사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행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오."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사원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소?"

"구루나 사문들이 사원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룻밤 묵을 겸 꼬삼비까지 행군하시오."

꼬삼비는 마우리아국 전에 강성했던 왐사국의 수도였다. 지금도 꼬삼비는 빠딸리뿌뜨라에서 웃자인으로 가는 중간도시로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다. 마우리아국이나 이전의 왕조인 마가다국이 세력을 확장할 때 모두 빠딸리뿌뜨라에서 바라나시, 꼬삼비, 웃자인 순으로 점령해 갔던 것이다.

아쇼까가 발견한 푸르스름한 사라나무숲은 남쪽 지평선 쪽에 있었다. 가깝게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일 뿐 실제로 거기까지는 한나절이 더 걸릴 터였다.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하면 일사병으로 군사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아쇼까는 탁실라를 오가면서 행군의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동속도나 휴식을 조절할 줄 알았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에게 지시했다.

"정찰조를 먼저 보내 꼬삼비 동태를 살펴보시오."

"꼬삼비는 옛 왐사국의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순순히 말을 잘 듣는 왕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찰이 없는 행군은 목숨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오."

"예, 부왕님."

선봉대장은 즉시 기마정찰조를 만들어 꼬삼비로 보냈다. 아쇼까는 기마정찰조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행군을 지시했다. 아쇼까의 예상대로 사라나무숲까지 이동하는 데 한나절이 꼬박 걸렸다. 군사들이 불볕더위에 지쳐 행군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아쇼까는 사라나무숲에서 선봉대장에게 휴식을 명했다.

"화덕은 정찰조가 온 뒤 걸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점심때가 지나서 군사들이 허기져 있습니다. 짜파티라도 구워서 먹여야 할 것 같습니다."

"꼬삼비에 웃자인의 반란군이 있는지 없는지 정찰조의 보고를 받아보고 결정하시오."

"웃자인의 반란군이 꼬삼비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꼬삼비까지 왔다면 이미 바라나시까지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군사의 일이란 모르는 것이오. 어젯밤에 웃자인의 반란군이 꼬삼비에 들어왔을 수도 있소. 그래서 정찰조를 보내라고 한 것이오."

"부왕이시여, 알겠습니다."

"꼬삼비에 반란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굳이 여기서 화덕을 걸 필요는 없소, 꼬삼비에 들어가 군사들에게 특식을 먹이는 것이 사기에도 좋을 것이오."

선봉대장은 아쇼까의 지략을 따라가지 못했다. 때문에 전투에서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그라도 아쇼까의 명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들은 산개해서 사라나무숲 그늘에 앉아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두 다리를 뻗고 쪽잠을 잤다.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열사병으로 낙오하는 군사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혹서기 행군에 질려버린 진압군 중에는 도망치는 군사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쇼까는 도망병을 붙잡아 극형에 처했다. 진압군들이 보는 가운데 화형이나 참수형으로 다스렸다. 이윽고 정찰조가 돌아와 조장 군관이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부왕이시여, 꼬삼비는 조용합니다. 반란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좋다. 오늘밤은 꼬삼비에서 머물겠다."

아쇼까의 명을 받은 선봉대장은 사라나무숲 그늘에서 쉬고 있는 군사들에게 대오를 갖추도록 소리쳤다. 전투가 없을 때의 행군은 기마부대가 선두에 서고 보병부대, 코끼리부대가 후미에 섰다. 코끼리부대가 전투할 때와 달리 후미를 지키는 것은 군수물자를 운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 뒤쪽에서 일산을 편 전투코끼리를 타고 행군했다.

말을 탄 선봉대장은 행군의 속도를 배가시켰다. 사라나무숲에서 기운을 얻은 군사들은 선봉대장의 지시를 잘 따랐다. 기마부대가 속도를 조금만 올려도 보병부대는 뛰다시피 했다. 군수물자를 나르는 코끼리부대도 생각보다는 보조를 잘 맞추어 뒤따라왔다.

꼬삼비성이 보일 무렵, 선봉대장이 아쇼까에게 말했다.

"꼬삼비 왕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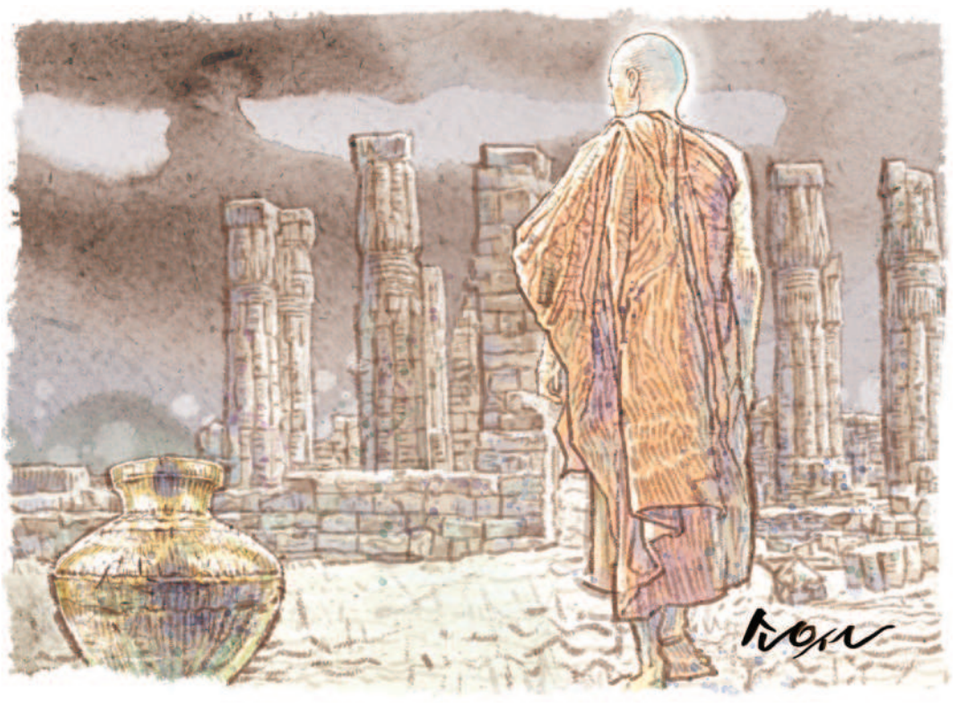
"우리 군사가 묵을 숙영지를 먼저 알아보고 오시오. 대왕께 충성을 다하는 꼬삼비 왕을 불편하게 하지 마시오."

"그럼, 숙영지를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성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싶소. 그러니 강가에 있는 절터였으면 더 좋겠소."

꼬삼비성으로 달려간 선봉대장은 긴장을 풀었다. 과연 꼬삼비의 거리는 평화롭고 한산했다. 뜨거운 햇볕이 땅바닥을 달구고 있을 뿐, 가로수 그늘이나 포도덩굴 밑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상희(象戱)놀이를 하고 있었다. 조그만 널빤지에 가로 세로 줄을 그어 코끼리와 말, 군사, 대포, 수레(車) 등이 그려진 둥그런 나뭇조각을 양쪽에 정렬시킨 뒤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놀이였다. 왕 노릇을 하는 상대방의 코끼리가 먼저 잡히면 판세가 급히 기울었는데, 노인들은 편을 갈라 훈수를 두고 있었다. 선봉대장은 꼬삼비의 거리를 한 바퀴 돌았다. 성 안의 동쪽에는 고시따라마 사원이, 서쪽에는 작은 왕궁이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은 가옥들은 빠딸리뿌뜨라 못지않게 크고 단정했다. 성 안을 한 바퀴 돌아본 선봉대장은 아쇼까에게 자신이 정찰한 대로 보고했다.

"정찰조의 보고대로 꼬삼비는 조용합니다. 웃자인 반란군은 없습니다. 숙영지는 고시따라마 사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대가 높아 성 안팎의 동태를 경계하기가 용이합니다. 더구나 강이 가까워 식수를 구하기도 용이합니다."



"좋소. 숙영지는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하시오."

아쇼까의 명령에 따라 진압군은 신속하게 꼬삼비로 이동했다. 꼬삼비성 동문에 이르자 성민을 다스리는 왕과 신하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실권은 빠딸리뿌뜨라에서 파견 나온 신하가 쥐고 있었고,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래도 의전 형식상 왕이 나서서 아쇼까를 맞이했다. 왕은 왐사국 우데나왕의 후손으로 체격이 호리호리했다. 왕이 아쇼까의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말했다.

"꼬삼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만찬을 준비했으니 왕궁으로 가시지요."

"고맙지만 거절하겠소. 오늘밤 나는 우리 군사와 함께 고시따라마 사원에서 머물겠소."

그제야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온 신하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부왕이시여, 고시따라마 사원은 폐사나 다름없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궁에서 편히 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군사들과 함께 있겠소."

"그러시다면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음식물을 보내겠으니 받아주십시오."

"고맙소."

아쇼까는 즉시 선봉대장에게 진압군을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가 성문을 들어서자, 꼬삼비 성민들이 몰려나와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다. 이동하는 진압군 군사들에게 꽃바구니를 든 여자들이 희고 붉은 꽃을 뿌리기도 했다. 진압군 군사들은 꼬삼비가 아니라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모두가 손을 흔들었다.

아쇼까 역시 꼬삼비성과 성민들에게 호감을 느꼈다. 고시따라마 사원에 이르자 그런 호감이 더 강하게 솟구쳤다. 고시따라마 사원의 강당건물들은 대부분 지붕이 무너져 있었고, 깨지고 그을린 벽돌들이 여기저기서 뒹굴었다. 그러나 수행자들이 사는 듯 경내는 비질이 선명했다. 아쇼까는 거대한 벽돌탑 기단에 올라 고시따라마 사원을 둘러보았다. 강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와 사원 중심에 우뚝 선 반얀나무 이파리들을 흔들었다. 그때 한 수행자가 항아리를 들고 아쇼까에게 걸어왔다. 이마에서 빛이 나는 젊은 수행자였다. 젊은 수행자의 기품 때문인지 군사들이 제지하지 않았다. 젊은 수행자는 북쪽 미투라에서 야무나강을 이용해 내려온 우빠굽따였다.

"왕자님이시여, 발을 씻으소서."

"난 사문의 스승이 아니오, 그러니 항아리의 물을 받지 않겠소."

아쇼까는 우빠굽따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거절했다. 군사들 앞에서 성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빠굽따는 항아리를 아쇼까 앞에 놓고 물러갈 생각이 없는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사문의 호의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성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소."

아쇼까가 난감해하자 선봉대장이 다시 말했다.

"부왕이시여, 저녁을 드셔야 하니 손발을 씻으십시오."

그 사이에 전령이 세숫대야를 가지고 왔다. 할 수 없이 아쇼까는 항아리의 물을 따라 얼굴과 손을 씻은 뒤 두 발을 닦았다. 우빠굽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가 빈 항아리를 옆구리에 낀 뒤 돌아가려고 했다. 아쇼까는 우빠굽따에게 무언가를 보시하려고 물었다.

"고시따라마 사원에서 수행하는 사문이오?"

"아닙니다. 소승은 성 밖 벌판에 있는 꾸꾸따라마 사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성 밖에도 사원이 있소?"

"꾸꾸따라마도 있고 빠와리까라마도 있습니다."

"사문이 아닌 나를 예우한 이유가 무엇이오?"

우빠굽따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자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께서는 저녁을 드신 후 쉬셔야 하니 빨리 말하시오."

우빠굽따가 아쇼까에게 공손하게 합장했다.

"예우가 아닙니다. 은혜를 미리 갚고자 작은 정성을 보여드렸을 따름입니다."

"사문이 내게 무슨 신세를 졌다고 그러는 것이오?"

"왕자님의 저녁시간인데 소승의 이야기가 길어도 되겠습니까?"

"좋소. 하시오."

우빠굽따가 야무나강 강물처럼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며칠 전에 꾼 꿈을 이야기했다. 아쇼까 왕자가 마우리아국 대왕이 되어 강가강 동서남북쪽으로 순행하면서 불탑을 세웠는데 그 불탑이 8만4천개나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빠굽따는 아쇼까대왕에 의해 마우리아왕국이 마침내 부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꿈에서 깼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빠굽따는 아쇼까 왕자가 꼬삼비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비록 꿈속의 감격이었지만 자신이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야무나강으로 내려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왔다고 고백했다.〈계속〉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 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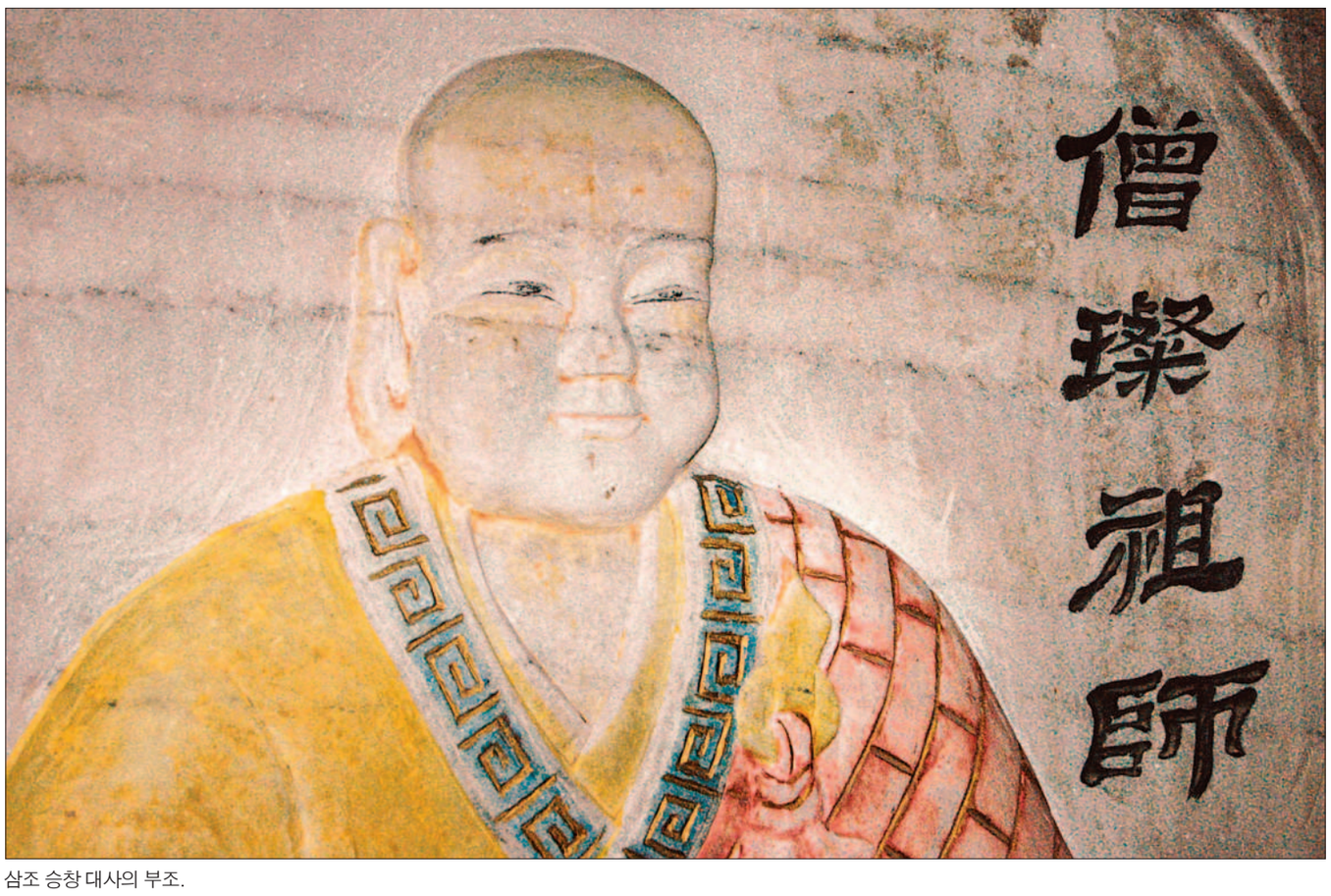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⑫ 선의 뿌리, 2조 혜가와 3조 승찬



▶ 한줄 요약
무아로 보고 행하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된다.

믿음 확고하면 마음이 편하다



삼조 승찬 대사의 부조.

달마와 2조 혜가대사 문답과 도(道)

선종의 2조 혜가(慧可, 487~593) 대사는 인도에서 온 달마대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 받고 소림사에서 9년 동안이나 달마대사를 모셨다. 지금도 중국 숭산 소림사에는 달마와 혜가 대사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선풍보다는 달마대사가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한 체조가 더 성하다.

소림사 주변에는 무술학교가 수십 개나 되고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 수만 명이 소림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 지금 소림사에는 선의 안목을 갖춘 눈 밝은 선지식이 없다. 중국 불교가 스스로 선종의 탄생지라 자부할지는 몰라도 공산화와 문화혁명 등의 법난으로 선의 전통이 단절되어 버렸다. 21세기 들어 중국 정부가 문화유산 복원과 관광개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찰을 복원하고 승려 수십만이 급증하는 등 불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양이지만, 불교가 제대로 정신문화적인 역할을 하려면 눈 밝은 선지식이 출현하고 선풍이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선의 안목이란 무엇인가? 여기 유명한 달마와 2조 혜가 대사의 문답으로 살펴보자.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 없이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墻壁 可以入道)"

"저는 이미 모든 인연이 다 그쳤습니다."

"단멸을 이루지 않았느냐?"

"없습니다. 밝고 밝아 어둡지 않으며, 분명하게 깨달아 언제나 알기에 말로는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전하는 마음의 본체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달마대사의 유명한 법문이다. 많은 불자들이 "모든 인연을 쉬고 마음을 장벽 같이 해야 도"가 성취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에서 말하는 도는 인연을 쉬고 마음을 담벼락 같이 하는 것이라 인식한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해다. 달마대사의 이 법문은 달을 보라는 손가락 법문이다. 마음을 장벽 같이 해야 도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하는 것이 깨달음, 도는 아니다. 달마대사의 이 법문은 깨달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을 말한 것이다.

지금 한국불교에 많은 법사들과 불자들이 '인연을 끊고 마음을 장벽같이 하는 도'를 말하고 추구하지 않는지? 이것은 달마대사가 말하는 단멸(斷滅)일뿐이다. 불교는 세속의 욕망이나 집착을 떠남을 말하지만, 세속의 단절과 소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단절은 불교의 중도가 아니라 외도(外道)이다.

요즘 깨달았다고 공부를 끝마쳤다고 말하는 법사들을 가끔 본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분들은 '비우고 내려놓고 고요하여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을 도, 깨달음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분들이 말하는 도, 깨달음은 달마대사가 말하는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도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달마대사의 달을 보라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여 깨쳤다 하고 남도 그렇게 안내한다면 외도가 외도의 길을 옳다고 가르치는 격이니 속지 말아야 한다.

지금 시중에 달마대사 법어집이라 소개되고 있는 선어록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달마대사의 행장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마구니말'이라 배척받아 독살되었다는 것이 정설인 선종 초기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할 바가 아니나 아쉽기 그지없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달마대사 법어집이 온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선종 역사서나 선문에 달마어록집은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달마어록은 거의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조 혜가대사의 전법과 열반

2조 혜가대사의 문하에 한 거사가 오랫동안 법문을 듣고 있었다. 그에게는 큰 병이 있었는데, 선종의 역사서 〈조당집〉에는 '풍질(風疾)', 알려지기로는 나병(문둥병)이라 한다. 이 불치병으로 거사는 평생 괴로워했는데, 전생에 지은 죄의 업보라 생각했다. 그러다 법문을 듣고는 용기를 내어 혜가대사를 찾아가 이렇게 청한다.

"제자는 불치병을 앓고 있으니 제 죄를 참회케 하여 주십시오."

집착하지 않는것이 도의 첩경
이분법에 털끝 하나 오른다면
부처됨은 하늘과 땅처럼 갈려

"네 죄를 가지고 오너라. 죄를 참회해 주겠다."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죄는 참회가 끝났다. 그대는 그저 불 · 법 · 승 삼보에 의지하기만 하라."

이말 끝에 불치병을 앓고 있던 거사는 언하대오 한다. 이조는 그를 인가하고 출가케 하고는 '그대는 승보(僧寶)이니 승찬(僧璨)'이라 이름하였다.

선종의 3조 승찬대사는 바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등장한다. 그는 평생 불치병으로 마음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혜가대사를 만나 법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찾아가 참회를 청하다 문답 끝에 확철대오하였다. '내가 있다' 고 생각할 때는 나도 있고, 병도 있고, 전생도 죄도 있다고 양변에 집착하여 괴롭게 살았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를 깨치니 나도 병도 전생도 죄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부처님처럼 온갖 속박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인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조사도 부처님처럼 무아, 무상을 깨친 것이지 무슨 특별한 도를 깨친 것이 아니다.

선종 역사서에는 불치병을 앓았던 승찬대사는 무아를 깨치고 출가하여 3대 조사가 된 뒤에 자연스럽게 그 병도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부처님의 무아 공 도리는 이와 같이 전생과 금생의 죄와 병의 고통에서 해탈의 길을 제시한 것이고, 승찬대사는 불치병을 앓던 거사의 몸이었으나 그 가르침대로 깨치고 대자유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승찬대사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전법한 뒤 2조 혜가대사는 "업도(당시 수도)로 가서 묵은 빚을 갚겠다"며 34년 동안이나 일정한 사찰 없이 인연 따라 저자거리를 떠돌며 중생을 교화했다. 어느 때 변화(辯和)법사가 업도 광구사에서 〈열반경〉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혜가대사가 나타나 법을 설하니 강의 듣는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갔다. 이에 법사가 불만을 품고 고을 현령에게 "저 사견을 가진 사람이 나의 강석을 어지럽혔소"하고 고하니, 현령은 사람을 시켜 혜가대사를 시해했다. 이때 2조 혜가대사의 나이 107세였고 수나라 시대였다.

불치병 환자가 3조되어 〈신심명〉 설하다

삼조 승찬(僧璨, ?~606)대사는 〈신심명(信心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심명〉은 부처님이 중도를 깨치고 설한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4언절구 584자로 잘 집약해 놓아 불교에 믿음을 내어 발심하고 깨달음까지 수행하는데 고준한 지침이 된다. 또한 선어록 중 아름다운 문장으로 선의 종지를 잘 드러내어 선을 공부하는 이에게는 필독서이다. 〈신심명〉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단지 간택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한 중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차별 없이 미움과 사랑의 양변을 떠나면 통연히 명백하다. 도는 본래 쉽다. 단지 '어렵다-쉽다', '안다-모른다' 하는 양변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은 무아 공을 깨달아 삶과 죽음도 해탈한 것이다. 우리도 부처나 조사 스님처럼 연기, 무아로 보고 행하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된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지 못하고 생사의 괴로움을 받고 사는가?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나'와 '나의 것'이 있다고 착각에 빠져 집착하고 있으니 병들고 나이 들고 죽는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머리털만큼이라도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져 영원히 해탈할 수가 없다.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중생과 부처를 다르다는 이분법에 털끝만큼이라도 집착하면 중생이 부처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진다.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마음을 잃으리라."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스스로 중생이라 착각에 빠져 중생이니 부처니 시비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소승이니 대승이니, 초기경전이니 대승경전이니, 간화선이니 위빠사나니, 참선이니 염불이니 시비하면 갈등하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빈부와 좌우, 남녀, 여야, 남북도 마찬가지다. 양극단에 집착하여 시비하면 대립과 갈등을 멈출 수 없고 평화와 행복은 요원하다. 양극단을 떠나되 아우르는 중도 지혜를 밝혀야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

"믿는 마음은 둘 아니요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니"

중생이 본래 부처라 믿는 마음, 부처님이 깨친 마음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믿음, 신심이 돈독할수록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믿음도 확고해진다. 부처님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확고할수록 흔들림도 줄어 수행도 잘되고 마음도 가볍고 편안해진다. 초발심이 그대로 정각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선의 3조 승찬대사의 〈신심명〉은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부처님이나 조사 선이나 중도를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불교인재원 교수〉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⑫ 출가 결심한 싯달타 태자



▶ 한줄요약
사대문 밖 마지막 북문에 나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관찰한 싯달타 태자는 시름에 잠긴다. 그러던 중 만난 비구 스님에게서 사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듣고 출가하기로 결심한다.

사문 만난 싯달타, 출가를 발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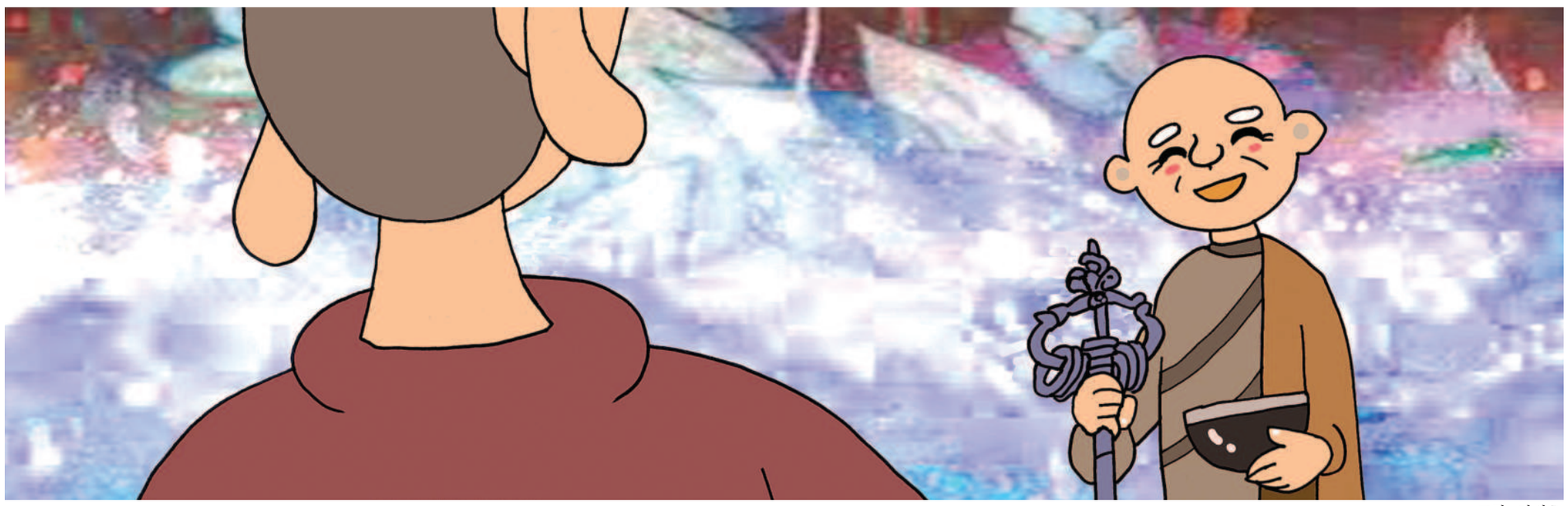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싯달타 태자는 드디어 사대문 밖 중 마지막 북문에 나가 '노병사(老病死)'를 관찰하고 시름에 겨웠던 원인의 결과를 해결할 열쇠를 찾는다. 그것은 곧 출가한 비구 스님 사문을 만나는 일이다. 이제 북쪽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거천이 비구 스님 차림으로 멋지게 걸어가서 태자가 한눈에 반하게 할 차례이다.

그동안 절을 기웃거리며 절밥을 먹은지 서른 해 남짓에 많은 스님들의 출가동기를 듣기도 하고 〈삼국유사〉 등에서 고승대덕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었다.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았다. 특히 〈삼국유사〉 효선 편의 스토리텔링은 모두 편부편모 슬하에서 자란 효심 깊은 이들이 효와 불교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 신미의 제자 학조 스님의 출가는 어린 학조를 보고 지나가던 스님이 출가시켜야 한다며 발바닥에 '왕(王)' 자가 새겨진 것으로 아버지를 설득한다. 조선에서 왕이 둘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장수하며 스승 신미를 이어 훈민정음 불경을 간행하고 세조부터 중종 대까지 큰 활약을 하여 결국 '승왕'이라 불렸다.

싯달타에게 출가란 무엇일까. 어쩌면 태자를 사이에 두고 생로병사를 연기한 정거천과 출가를 막는 아버지 정반왕의 한 판 겨루기가 아닌가. 여기에서 정거천의 승리를 관전하는 재미도 솔솔하다.

북문 밖서 사문을 만나다

또 북문 밖에 나가셔서 말을 부려 놓고 즘게 나무 밑에 쉬시며 모시고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혼자 깊은 도리를 생각하고 있으시니 정거천이 사문이 되어 석장을 짚고 바릿대를 받치고 앞으로 지나갔다

사문(沙門)은 부지런히 행적을 닦는다는 말이니 중을 사문이라고 한다. 장(杖)은 막대기이니 막대기에 고리가 있어 짚고 다닐 때 석석(錫錫)한 소리가 나므로 석장이라 한다.

이제 태자는 성문 밖에 나가 커다란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사유(端坐思惟)하는 일이 일과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봤자 시종들이 따라붙고 말을 타고 시정을 굽어 살피는 시찰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말이다.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말에서 내려 앉아 깊은 도리를 생각하는 명상에 잠겼을 때 우리의 정거천께서 스님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신다.

여기서 사문의 모습이란 부지런히 행적(行蹟)을 닦는 사람이고 '중'이라 부른다. 행적은 도를 닦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중'이라는 단어가 '스님'을 낮잡아 부르는 호칭이 되었지만 15세기 당시에는 우리가 호칭하는 '스님' 이상의 뜻이었다. 〈석보상절〉 6권에는 승가의 의미로 '중님네'란 단어도 나온다. 또한 '부처'라고 쓰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쩌면 '님'이 덧붙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의 의미가 우러나는 본래의 우리말이 점점 격하된 예가 아닐까. '아줌마'가 '여사님'이 되고 '김 씨'가 '김 사장님'이 되어가는 선례로 말이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혹독한 불교 박해로 인한 의미의 인플레이션인듯하다.

이 사문의 거동 보소. 석장을 짚고 바릿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갈 뿐이다. 그 지팡이에서 고리가 달려 석석한 소리가 난다. 훤칠한 대장부의 모습으로 걷는 것만으로 좌중을 압도한다. 석장은 윗부분을 주석으로 만든 지팡이인데 탑 모양인 윗부분에는 큰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작은 고리를 여러 개 달아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짤랑거리는 지팡이 소리 정도가 되겠는데 '석석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든다. 사전에는 까끌거리는 '깔깔하다'와 '차갑다'는 방언으로 남아 있다. 바릿대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발우를 말한다. 그런데 그 발우를 받쳐든다고 한다. 인도 조각을 살펴보면 큰 발우를 두 수행자가 어깨에 받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받다'는 꽤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한 손에 지팡이 짚고 한 손에 발우를 어떤 모습으로 잡아야 공경하는 의미가 담긴 '받다'를 표현할 수 있는지 문득 궁금하다. 통도사의 봉발탑에서 발우를 얼마나 공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산치대탑처럼 발우를 엎어놓은 형상으로 복발탑이라고 부른다. 발우를 '받다'라는 표현에서 공경하여 봉양하는 '이받다'도 연상된다. '석가보'에는 사문이 의복을 단정히 하고 손에는 법기(法器)를 들었다고 하는데 석보상절에서는 사문의 씩씩하고 장엄한 모습을 지팡이와 발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마지막 북문서 '老病死' 관찰
시름에 잠겨있던중 사문만나
"부처님 되는 수행자" 답변에
싯달타태자 "좋을시고" 감격

태자가 물으셨다. "그대 어떤 사람인가."
대답하되 "부처의 제자 사문이라 합니다."
태자가 물으셨다. "어찌 사문이라 하는가."
대답하되 "삼계가 어지럽고 육취가 어지럽거늘 마음을 알아서 근원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이름을 사문이라 합니다" 하고 허공으로 날아갔다.

삼계 안에 목숨을 타고 난 것이 사람이 되었다가 중생이 되었다가 하면서 끝없이 육취에 두루 다니므로 어지럽다 하는 것이니 육취는 여섯 길로 가는 것이니 위에 말한 다섯 길에 아수라를 더해 여섯이다. 부처는 삼계 밖을 벗어나시어 항상 편안하시거늘 중생은 벗어날 일을 하지 않아 육취에 떠돌되 수고로운 줄을 모르므로 어지럽다고 한다.

태자가 그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묻는다. 사문이란 삼계(三界) 육취(六趣)가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본질을 마음으로 꿰뚫어보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삼계와 육취가 무엇인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불교의 우주를 말한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육취라는 천, 인,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육도를 사람이 되었다가 축생이 되었다가 윤회하는 일을 모두 잡아 이르는 말이다. 오직 부처만이 삼계를 벗어나 항상 편안한데 그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이가 사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생은 사람과 대비될 때는 '짐승'의 의미로 쓰이고 부처와 대비될 때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 곧 사람을 포함한 동물 등 육도를 윤회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사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허공으로 날아갔다. 요즘 말로 시크하다. 그랬더니 태자의 반응도 놀랍다.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좋을시고. 이것이야말로 마음에 훤해지고 즐겁도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가장 기뻐하셨다.

네 문 밖에 나가신 것이 부처의 나이 열아홉이시니 주소왕 44년 임신(B.C. 953년)이다

'좋을시고' 드디어 답을 찾았을 때 절로 나오는 이 한마디. 아마도 어깨춤이 절로 나지 않았을까. 요즘 2030 젊은 세대들이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다 어렵다고 매사를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딸이 하나 있어 옆에서 보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정말 한 백번쯤 취직시험에 떨어지고는 자존감이 지하 100m로 추락했다고 말해 아주 작은 뭐라도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와 응원하는 마음뿐이었다. 얼마 전 드디어 꿈같이 취직이 되었다며 좋아하면서도 한편 스스로도 믿지 못한다. 얼마나 떨어졌으면 합격이 비현실적인 일로 실감조차 두려워하나.

태자의 노병사(老病死) 통찰이 이에 비유가 되겠는가만 사문을 만나고 돌아와 기뻐하는 모습이 합격소식을 들은 딸과 내 모습에 오버랩돼 하는 말이다. 오래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태자의 사문유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 사문을 만나고 돌아와 환희작약하면 얼마나 좋을까. 〈월인천강지곡〉 사십사장은 이 사문유관을 이렇게 짧게 명쾌하게 노래하고 있다.

사십사장〈월인16ㄴ〉
동남문 노니시매 늙은 사람 병든 사람을 보시고 출가의 마음을 내시니
서북문 노니시매 죽은 사람 비구승을 보시고 더욱 마음이 바빠지시니

태자가 늙음을 보고 세간의 슬픔이 깊어지고 병든 이의 괴로움을 보고 시름에 잠기더니 죽은 사람을 보고는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결심한다. 그러다 사문을 만나 그 길이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 장면이다. 자 이제 실천하는 일, 출가가 기다리고 있다.

태자 출가를 결심하다

태자가 밤에 왕궁에 들어가시니 광명이 두루 비쳤는데 왕께 사뢰었다. "출가하고자 합니다."

왕이 손목을 잡고 울며 말씀하셨다.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라. 나라를 이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태자가 말씀하셨다. "네 가지 소원을 이루고자 하오니, 늙음을 모르고 병이 없으며 죽음을 모르고 여의는 것을 모르고자 합니다."

왕이 더욱 슬퍼하며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 소원은 예로부터 이룬 사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튿날 석가종족 중에 용맹한 사람들 오백명을 모아 문을 굳게 잠그라고 하셨다. 용(勇)은 힘이 세며 날랜 것이요 맹(猛)은 매운 것이다.

정말 눈물없이 볼 수 없는 아버지 정반왕의 간곡한 만류가 심금을 울린다. 태자는 여기서 생로병사 중 생(生) 대신에 이별을 꼽는다(一者不老°二者無病°三者不死°四者不別). 어느 부모인들 자식의 앞길을 막고 싶겠는가. 그러나 가겠다는 길이 어느 인간도 이루지 못한 노병사와 이별이 없는 길이라니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잠그는 수밖에. 누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사서 고생을 하며 살다가 자신이 부모가 되고나서야 그 심정을 헤아리고 눈물을 쏟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석보상절〉의 이 장면이 그래서 나도 슬프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⑦ 양곤외대 교수 '수윈레이'



▶ 한줄 요약
수윈레이는 양곤외국어대학교에서 3년정도 한국어과 교수 생활을 하다가, 광고 분야에 관심이 생겨 평생 안정적인 교수의 직업을 그만두고 국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미얀마 국립대 교수 출신 '특별한' 유학생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보다 '타인의 기준' 에 맞춰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스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는 사회의 형성된 시선에 맞춰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다. 한 때는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 하면 인생 전체가 망한 것처럼 고3 수험생들을 낙인 찍던 사회적 시선도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명문대 입학이 하나의 과정이지 인생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지고 있다.

미얀마 유학시절, 미얀마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우리' 라는 단어보다 '개인' 이라는 단어가 익숙했던 나에게 미얀마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방식들은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녹여줬다.

제일 부러웠던 것은 '스스로의 마음' 을 살펴보는 일에 미얀마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인연이 닿아 간화선 수행을 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관조하며 살펴보는 일은 하늘에 구름이 낀 것처럼 너무나도 어려웠다. 하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등을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타인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힘은 천년이 넘은 미얀마 불교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도 '교수' 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예로운 일이다. 미얀마에서 '교수' 라고 하면 한국보다 더 명예롭다. 한국에 미얀마 교수 신분으로 유학생활을 하러 오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교수를 하다가 자신에게 또 다른 관심분야가 생겨 직업을 그만두고 유학온 '수윈레이' 의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놀랐다.

양곤외국어대학교에서 3년정도 한국어과 교수 생활을 하다가, 광고 분야에 관심이 생겨 평생 안정적인 교수의 직업을 그만두고 국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그가 한국을 처음 접한 것은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음악이었다. 한류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한국어과 교수도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결국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가 사랑하는 한국어를 매일 느끼면서 '광고' 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인 한국으로 작년 9월에 유학을 왔다.

미얀마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어린시절 동자승 출가의식을 하지만, 여자들은 선택적으로 출가를 한다. 그는 부처님에 대한 불심이 남달라 남자아이들과 같이 10일동안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느껴 봤던 경험에 대해 연꽃처럼 빛나는 두 눈을 반짝였다.

그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라고 다소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주저없이 '중도(中道)' 를 말했다.

"삶에선 순간 순간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극단적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매 순간 조심해요. 중도는 삶에 있어 적합한 가르침이라 생각해요. 억울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반대로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분에 취하지 않도록 늘 노력해요. 중도의 길을 가는 삶을 이번 생에 살아보고 싶어요."

미얀마에선 한국어 교수
관심 분야 '광고' 배우려
한국 광고홍보학과 유학

'미얀마의 봄' 팀 구성해
양국 상호 이해 이끌어
'중도' 삶 지탱하는 철학



교수 출신 유학생 수윈레이.



한국서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하며 고국 안전을 발원한다.



고양시가 주관한 행사에서 미얀마 상황을 알리는 수윈레이.

수윈레이는 "이 이야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살기 위해 수영을 한 주인공의 끈기에 감탄했다"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노력도 하지 않고 주저 앉는 것보다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도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95년생 또래 친구들과 함께 〈미얀마의 봄〉 이라는 팀을 통해 문화적으로 미얀마 민주화를 한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로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와 미얀마 사람들의 삶을 보니 '향을 싼 종이에선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선 비린내가 난다' 는 말이 떠올랐다.

그는 미얀마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와 문화 속 불교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얀마의 문화는 불교에서 많이 내려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동화부터 불교의 가르침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문화행사나 풍습들도 불교와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미얀마 사회 구성원이 대부분 불자라서 불교적 가치관이 미얀마 현대사회를 이끄는 데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덕적인 가르침들도 불교에서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미얀마인들의 일상 속에서는 불교가 빠질 수 없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과 문화도 불교를 바탕으로 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부처님께 기도문을 올리고 파고다에 가거나 좋은 일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등과 같이 불교의 가르침들이 미얀마 예의범절에 녹아 있는 것들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간혹 미얀마 민주화 기사를 읽다 보면 2007년 샤프론 혁명과 같이 미얀마 승단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아예 나서지 않고 있다는 식의 칼럼을 종종 볼 수 있다. 미얀마 사람인 그에게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 속에서 스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묻자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스님들도 도와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 힘 쓰고 있다"며 시위대나 피난민들에게 음식이나 주거지 제공 등을 도와주고 있고 시위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는 불교계와 스님들의 노력이다.

그리고 그는 불교의 정신적인 가치가 현재 미얀마 상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미얀마 민주화 과정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불교적 가르침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제 삶에 희망을 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마음을 다시 다스리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작은 체구이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온 아우라는 남달랐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 가 삶에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며 의연하게 날 바라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와 미얀마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경전이 아닌 힘든 인생 속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이다. 한국에서 배운 광고홍보를 미얀마에 어둠이 걷히고 다시 봄날이 따스하게 찾아 온 날 고국의 발전을 위해 멋지게 활동할 수윈레이의 미래를 응원한다. 〈양곤대 박사과정〉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 범패 1기생 : 교육과정 1년 ❖

사물다루는 법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시식

천도의식
천도재,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개강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원장 : 대광스님)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자 격 : 승, 속 관계없음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02번지
(모서별봉길 52-33))
❊수 업 료 : 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연 락 처 : 054-762-5888 (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투자자 구함

• 납골당및 사찰 건립예정
• 투자금액 40억원 1년이내 상환
• 수익금 40억은 4년 이내 지급
• 담보해드림
• 화장장 10분 거리(서울인근)
• 잔고증명서 확인후 상담

☎ 010-6545-2020
신화불사

석가모니, 화생(化生)한 화신불일 뿐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㉔ 구원실성(久遠實成)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여래의 참다운 말을 믿고 바로 알라."

이 말을 세 번을 거듭하여 말하였다.

이때 보살들의 무리 가운데 미륵이 선두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받들겠나이다."

미륵도 이렇게 세 번을 거듭 말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이 세 번이나 간청해 마지않는 것을 아시고 온갖 세상의 천신, 사람, 아수라 모두에게 이르셨다.

"지금 석가모니불이 석가족의 궁전에서 가만히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내가 성불한 지는 실로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 되었느니라. 비유컨대 5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의 삼천대천세계를, 설사 어떤 사람이 부수어 작은 티끌로 만들어, 동방 5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의 세계를 지나 티끌 하나를 떨어트리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자꾸 가서 이 티끌들이 다할 때까지 한다면,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세계들을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미륵보살 등이 같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세계가 한량없고 가없어서 헤아려서 알 바 아니며, 또 마음으로 생각해도 미칠 바 아니오니, 일체 성문, 벽지불의 샘이 없는 지혜로도 능히 사유해 그 한계를 알 수 없으며, 저희가 물러나지 않는 수행의 지위에 있다 해도 이 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바이오니, 세존이시여, 이런 세계란 한량없고 가없을 뿐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큰 보살들의 무리에 이르셨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이 여러 세계의 작은 티끌이 묻었거나 안 묻었거나, 그 모든 땅을 티끌로 만들어 티끌 하나를 한 겁으로 친다 해도, 내가 성불한 지는 다시 이보다 더해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겁이니라."

〈법화경〉 28품 중 후반부인 15품부터 28품까지의 본문(本門) 법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이 '여래수량품'이다. 이 품에 '부처님이 언제 성불했나?'에 대해 부처님이 직접 밝히는 말이 있다. 부처님과 미륵보살이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면서 '믿고 바로 알라' 하고 '믿고 받들겠다' 하면서 부처님의 성불에 대해 말한다. 천상과 인간, 아수라의 불법을 들을 수 있는 삼도중생에게 일러주는 말이다.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석가족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불한 지는 실로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되었느니라.' 법신으로 의인화된 부처님이 인간 석가모니의 깨달음 이전에 본래 깨달음의 부처로 있었다는 말이다. 이를 '구원실성(久遠實成)'이라 하는데 〈법화경〉의 중심사상이다. 싯다르타로 태어나 출가하여 보리수 아래서 도를 이룬 인간 석가모니는 화생(化生)한 몸인 화신불일 뿐 부처의 본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 품에서 부처님의 수명(壽命)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사적 부처님의 성불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정토신앙의 아미타불을 무량수(無量壽)라고 하듯이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무량수의 참뜻을 알아야 불법을 아는 것이며 일승(一乘)의 실교(實敎) 법문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승경으로 간주하는 〈아함경〉 등에서도 부처님이 "내가 깨닫기 이전에도 법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법은 역사적 사실로 어느 시점을 기하여 시간적으로 그 자체 존재를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는 신앙이며 불교는 법, 곧 진리에 대한 신앙이다. 인간은 역사에 의하여 역습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신앙 정서가 파괴되어 진리에 나아가는, 또는 불교의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수가 생길 수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대승 보살로서의 자질 갖추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㉔ 율의계와 섭선법계

동아시아불교에서는 대승보살계인 삼취정계(三聚淨戒) 가운데 섭중생계(攝衆生戒) 또는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를 중시한다. 반면에 율의계(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물론 대승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 마음가짐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이타적인 동기가 이타적인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승 보살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설령 그 자질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질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율의계와 섭선법계를 잘 알아야 한다.

율의계는 섭율의계(攝律儀戒)라고도 하는데, 모든 악을 끊기 위해 금계(禁戒)를 지키는 것이다. '유가론'에 의하면, 보살의 율의계는 일곱 부류의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를 수용하는 것이다. 즉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니, 사미, 사미니, 재가의 남성 신자, 재가의 여성 신자들의 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보살계 안으로 부파불교의 칠중계(七衆戒)인 비구계, 비구니계, 식차마나계, 사미계, 사미니계, 우바새계, 우바이계를 포섭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율의계에서는 칠중계의 형식적인 면을 비판한 것이지, 칠중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가론'을 비롯한 중기 대승 경론에서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데 재가 보살보다 출가 보살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생활방책으로 출가하는 것보다 의향의 청정성에서 출가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모든 보살은 율의계에 머물러 자신의 과실과 허물에 관해 생각하고, 다른 이의 과실과 허물을 엿보지 않는다. 계를 범하는 중생들에 대해서도 분노심과 증오심이 없으며, 그들에게 대연민심을 품어서 널리 이익되게 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섭선법계는 10가지 선한 행위를 포함한 모든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유가론'에 의하면, 보살은 율의계를 받은 후에 대보리(大菩提)를 위하여 신체와 말을 통해 어떤 것이든 선을 적집(積集)한다. 구체적으로 보살은 신체와 말과 뜻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선을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회향하며, 그는 적시에 다양한 서원과 일체 종류의 광대한 삼보(三寶)에 공양을 올리며, 그는 항상 선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용맹정진하면서 방일하지 않는다. 요컨대 온갖 종류의 선법(善法)의 획득과 보호와 증장을 위한 계가 바로 섭선법계이다.

섭선법계에 머무는 보살은 5가지를 용인하지 않는다. 첫째는 신체와 재물에 관한 의존성이며, 둘째는 모든 악한 계로부터 생겨난 분노와 원한 등의 번뇌와 수번뇌(隨煩惱)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일으켰던 증오와 분노의 적대적인 마음이며, 넷째는 이미 생겨난 나태와 게으름이며, 다섯째는 이미 생겨난 집중 상태에 대한 탐착과 집중 상태에서 나오는 번뇌이다.

또 보살은 선한 결과의 유익함을 여실하게 잘 알며, 선한 원인과 선한 결과에 관하여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과 선의 포섭에 대한 장애를 여실하게 안다. 보살은 선한 결과를 공덕으로 본 후에 선을 포섭하기 위하여 선한 원인을 추구하며,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을 여실하게 안다. 보살은 선의 결과를 획득한 후에 무상(無常), 고통, 청정하지 않음, 무아(無我)를 여실하게 알고서 선의 포섭에 대한 방해를 버린다. 보살은 10가지 측면에 의해 선법을 포괄하는 계에 안주하여 신속하게 선을 포섭하고 모든 측면을 포섭하게 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㉔ 불교와 힌두

고대 힌두적 사회관습이 끼친 영향

이슬람이 인도 땅에 들어왔을 때 일부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를 고려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경우가 있었다. 주로 힌두교의 하층민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계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도 땅에서 자리 잡은 이슬람 공동체 내에는 중세부터 현재까지도 인도식의 계급적 문화와 위계가 존재한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힌두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도의 사회적 토양에서 새로운 인도-이슬람의 계급 사회가 등장한 것이다. 이슬람이 인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인도가 이슬람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종교사회의 변이를 우리는 초기 불교의 국면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석가모니 당시 설정되었던 많은 승가의 규정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시간이 흐를수록 재가자들의 힌두적인 사회규범이나 종교관습에 따라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재가사회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문 종교들의 자기검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있는 사람이나 노예를 출가시키지 않았던 것이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고대 힌두의 율법 상 채무가 있는 사람이나 그 자식들은 채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빚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따라서 출가를 통해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자들을 무분별하게 출가시키는 일이 비난받았던 것이다. 노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산스크리트어 어근 das는 무엇인가를 써버리거나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노예를 뜻하는 단어 '다사(dasa)'가 등장한다. 고대인도 사회에서 노예는 가축이나 금과 같이 물물교환의 가치를 갖는 소유물의 하나였으며, 마치 물건과 같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 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없는 존재였다. 당연히 초기 불교교단에서는 이들의 출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만일 노예의 뜻대로 출가시킨다면 불교 승단이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고대 힌두적 사회관습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면서 불교승단은 율장의 계율들을 만들어 갔을까. 예를 들어 힌두사회의 계급적 관습은 어떠할까. 그것도 불교가 인정했을까.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당연히 불교는 사문의 종교이므로 사회적 계급이나 그에 의한 직업적 층위에 대한 편견 따위가 존재할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소 피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 힌두 사회의 계급질서가 정(淨)과 오염(汚染)의 관념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순수-오염, 또는 깨끗함-더러움의 이념적 실천이 그대로 불교 교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 또는 죽음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 또는 이러한 일과 관련된 인물들은 힌두 사회에서 볼 때 종교적이며 계급적인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극단적인 오염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를 극단적으로 기피하게 된다. 그런데 불교는 이러한 힌두적인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화장터 등에서 고행을 하던 승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지(葬地)에 거주하며 죽은 자의 옷을 걸치는 승려가 사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또한 불탑에 예를 취해서도 안 된다. 굳이 불탑에 예배하고자 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없다. 그러한 승려는 승방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침구에 앉아서도 안 된다. 도반들과 함께 어울려서도 안 되며, 바라문들이 모여 있는 자리나 사원을 찾아온 장자들에게 법을 설해서도 안 된다. 바라문이나 장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또한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은 고대 인도사회에서 흔히 대면하게 되는 '오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규정과 일치한다. 불교가 아니라 세속적인 힌두사회의 규범이 불교 교단의 계율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힌두교가 팽창한 고대 인도사회에서 불교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세속사회와의 적절한 타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끝〉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46호 | 17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사주명리학 강의 수강생 모집

❊ 3개월 완성 ❊
❊ 왕초보자 환영 ❊
3개월 후에는 술술 잘 풀도록 해드립니다.
강의 장소 : 부산시 또는 경주시
※ 카드결제가능
010-2523-7771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스님들의농장 운영보살

❖ 도고온천에 2박3일
❖ 불자들은 무료로 콩새싹밥 칡밥에 도전하시고져 하는분
❖ 고졸이상 운전 컴퓨터 음악이나 글짓기
❖ 임명이 결정되면 준성직자 100일 교육
❖ 지장성모님 해탈세계 밝고맑은 사람들
만불사 043-745-3332
010-3410-0004

비법전수

不立사주학
주역신단, 작명비법 등
저서 백여권, 동방진인
역학대학교수, 우선
최다목록 무료검색창
네이버, 다음 역학대통령 ▼
02-907-5858 장애스님 무료 전수

...

부전스님
모십니다.
...
010-2078-9595

사찰 세무 및 회계 신고대행

저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에서는 우리 사찰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 신고대행
◦ 사찰 회계 장부 및 결산서 작성 대행
◦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전화 : 051-996-0308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가 피

손에 잡히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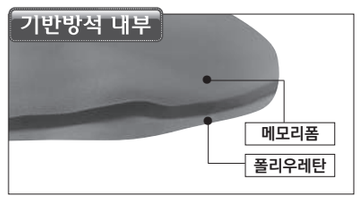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46호 | 18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경기
◎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6억
◎위치 : 대전서구포교당
◎면적 : 35평
◎보증금1000/30만원
◎시설비1000조정가
◎APT상가, 포교용이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전통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공원같은곳(종교용지 900평)
- 은행대출 1억5천안고, 2억4천5백만 합계 3억9천5백만(공원같은곳)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와티길 212, 총평수 대략500평
- 바다가보이고 넓은잔디밭에 조경 잘되어있음, 대웅전, 요사채2층
- 사천읍15분거리 축동IC 5분거리
- 매매가 4억, 대출 1억가능
- 월.전세 문의불문 꼭사실분만 전화 (사찰구입시 몸만오시면됨)

010-5430-46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 보증금 1000만, 월세, 관리비 60만원
-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불화등)
- 가액 12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전망좋은 사찰
- 대지 : 28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많은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0억 5천만원

010-3269-1023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1천3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235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8천5백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7473-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0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5거리 (당산나무옆 2층)
- 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 권리금 : 1천5백만원(바로 법회 가능)
-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 위치 : 사찰(급)안내
- 부산동래구(부지 1천평, 건물4백평)
- 가액은 상담(방문)후 결정
- 전시컨벤션 ● 노인복지시설
- 불교명상센터및 힐링캠프
- 미래를 선도(先導)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추천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안양시 관악산 (관악산 둘레길 참배객 많음)
- 대지 : 360평 외 국유지 약 200평
- 건물 : 6동 외 미륵전
- 가액 : 18억

010-5330-859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마음의 평화 자유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언제나 가능해요. 기분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안심과 해방은 언제나 가능해요.

마음을 쉴 때 알아차림이 저절로 드러나요. 생각을 버릴 때 참본성의 자유와 평화가 저절로 드러나요.

저항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고 익숙해질 뿐이에요. 그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앎을 항상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이미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매 순간 가능해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⑫ 야생 고차수 보이차

종소리처럼 온몸 울리는 천년 기운

애차인(愛茶人)으로서 차를 예찬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차나무가 스승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가인여차(佳人如茶)'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차를 닮았다는 뜻이지요. 차를 마시며 차를 닮으면 대자연의 품으로 회귀하여 숲의 향기를 품은 사람,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럽고 겸손하고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야생 고차수 보이차의 맛은 어떠할까요? 차나무 나이가 1000년이 넘었다고 하면 왠지 차가 메마를 것 같고, 야생차라고 하면 좀 더 거칠고 쓸 것 같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나무는 정 반대입니다. 100살, 500살, 1000살이 넘은 고차수일수록 차는 더욱 달고 부드럽고 천연 원시림의 야생차일수록 더욱 상쾌하고 향기롭습니다.

야생 고차수 보이차를 맛보고 싶은 분이라면 세 개의 차산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무량산, 대설산, 애뢰산. 산이 높고 운무가 발달한 곳에서 좋은 차가 납니다. 중국 운남에서 귀주에 펼쳐진 큰 산들을 포괄하여 운귀고원이라고 하는데 무량산, 대설산, 애뢰산은 그 중 일부이며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운귀고원은 2억 년 전에 바다가 융기한 곳이며, 4기 빙하기 때에 빙하의 피해를 입지 않아서 원 생태 식물과 동물의 보고인 곳입니다. 차나무의 유전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곳의 차나무가 세계 차나무의 원산지로 밝혀졌습니다.

무량산은 차산 중에서 가장 높고 야생 차나무 군락지의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산이 높고 계곡이 깊은 울창한 삼림지대로 예로부터 란창강 상류에서 가장 유명한 차산입니다. 중국 삼국시대부터 차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청말 민국 초에 고6대 차산이 파괴되면서 보이차의 명산으로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무량산은 해발 1600m에서 2800m 사이에 야생차나무가 분포되어 있으며 수령이 1000년이 넘는 야생 차나무도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생차는 물론이고 재배차든 현대화된 개량종이든 최초 형태의 차나무 수종이 가장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차나무의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종미 교수가 인사동 티하우스 잇다(it 茶)에서 우린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 1999.

대설산은 해발 2200m에서 2750m 사이에 그 유명한 천년 야생 고차수 군락지가 있습니다. 맹고대설산 1호 차왕수는 수령이 2700년이 넘는데, 높이는 17m, 둘레는 어른 3명이 감싸 안아도 팔이 모자를 만큼 두껍고 나뭇가지가 펼쳐진 폭이 사방 10여 미터에 달하는 대왕수입니다. 대설산은 원래 삼림이 너무 울창해서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 한 마리도 비집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빽빽했는데, 1997년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야생원시목이 고사하면서 밀집한 식물들 사이에 적당한 틈이 생기면서 고차수 군락지가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애뢰산은 원시삼림이 바다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룹니다. 애뢰산은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차마고도가 지나갑니다. 차를 실어 나르던 마방과 차상들이 가장 힘들게 건너야 했던 길도 애뢰산입니다. 예로부터 사내 한 명이 길을 막고 버티면 1만 명이 와도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할 만큼 험준한 요새입니다. 해발 3000m 그 요새가 되는 관문에 야생차의 명소 천가채(千家寨)가 위치합니다. 천가채 야생 차왕수는 수령 2700년이 넘고 키는 25.6m에 둘레는 3m가 되고 나뭇가지가 펼쳐진 폭이 20m가 넘는 신령한 대왕수입니다.

무량산, 대설산, 애뢰산 천가채 등지는 오늘날에는 원생태 자연보호구역으로 차나무 채엽이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를 품(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는 차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강한 차 기운이 감미롭고 향기로운 차의 맛 아래 은근하고 묵직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선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 2005' 를 두 손으로 꺼내 듭니다. 면지를 풀기도 전에 야생차향이 번집니다. 2005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17년이 되었네요. 보이생차는 25년은 지나야 노차(老茶)가 됩니다. 17년은 햇차에서 노차로 익어가는 과정 중인데, 천년 야생 고차수의 모차(毛茶, 차의 원재료)가 워낙 훌륭해서 17년 차의 맛도 아주 훌륭합니다. 야생 차나무는 찻잎이 크고 두터우며 백호가 발달하지 않아 보이차를 만들면 찻잎이 까맣게 보입니다. 수색은 황금색으로 투명하고 윤기가 흐르며 약한 고미 뒤에 단맛이 풍부하여 한 모금을 마셔도 입에 단침이 돕니다. 물질감이 풍부합니다. 찻물은 식도를 따라 내려가고 향기는 휘발성이라 기도를 따라 올라오는데 숲의 온갖 들꽃 향기와 약초 향기에 멘톨 한 방울이 떨어진 듯 상쾌하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 1999' 를 두 손으로 꺼내 듭니다. 병차(둥글게 긴압한 차)를 해괴(긴압한 차를 풀어내다)하는 손이 조심스럽게 떨립니다. 무량산의 원주민들이 수호신으로 모셨을 천년 차나무의 찻잎을 보이차로 만든 지 23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되니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입니다. 병차 표면이 진하다 못해 흑색으로 보이며 윤기가 흐릅니다. 자사호에서 찻잔으로 떨어지는 찻방울이 등황색으로 맑고 영롱하고 윤기가 흘러 마시는 보석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뾰족하게 컷팅된 보석이 아니라 땅속에 묻혔다가 나온 천년 옥입니다. 한없이 둥글고 부드럽습니다. 은근하고 품위 있습니다. 차를 한 잔 음미하고 고요히 앉아 있노라면 차 기운이 저 아래 땅 밑에서부터 묵직하게 밀려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종소리의 파동처럼 차를 마신 후에 차 기운이 파도처럼 온몸을 휘어 감습니다.

〈잇다it茶 대표〉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탈종공고

• 사찰명 : 지통사
• 주 지 : 상묵 (속명 : 노연만)
• 주 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20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도운사
• 주 지 : 경월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75번길 28 (신흥동 현진A 601호)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분노의 생각이 일 때, 근본 원인을 사유하라.

고통의 주적은 분노다



고통과 의도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화나는 이유는 신체적 통증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풍이나 담 등 병의 고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그들 역시 조건의 지배를 받을 뿐인데 왜 유정들에게 분노하는가. [6:22]

똑같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감기에 걸렸을 때는 감기에 화를 내지 않지만, 누군가가 날 때렸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고통을 겪는 원인이 되는 대상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하는데, 이 차별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만약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이 통증이라면 감기에 걸렸을 때도 우리는 감기에 화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가 괘씸해서 화를 낸 거라면, 유정물인 상대에게는 화를 내고 무정물인 감기에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문제라면 누군가 해를 끼치려는 의도만 품어도 우리는 그에게 화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화를 많이 내야 할까요?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결국 외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분노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은 여전히 고통의 주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해를 끼친 그 사람도 결국 분노에 지배당한 것이니 이면에 숨겨진 진짜 주적은 분노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원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분노와 같은 번뇌도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네.
화를 내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화도 자기가 일어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네. [6:23-6:24]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 조절을 하지 못 해서 사고 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손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폭발하는 것은 결코 자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싶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루지 못하기에 이에 지배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이 대상을 태우는 것이 본성이듯, 분노에 지배당하는 존재는 주변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본성입니다.

평소에 착하던 사람도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수라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고 착각하여 실망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분노라는 귀신에 먹혀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번뇌조차도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조건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분노는 마음 창고 어딘가에 숨어서 때를 보고 있다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불현듯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마른 장작과 풀을 준비하고 그 위에 부싯돌을 부딪치면 불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불이라는 실체가 공기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지금쯤 나타나 볼까?"하고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불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나타났다 그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뿐입니다.

열반을 추구하는 우리는 주적인 분노조차도 그저 조건에 의해 일어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라는 허상과 싸우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상대하는 방법은 분노가 일어날 조건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 분노라는 실체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와 여러 종류의 악행들도
모두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네.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겠다는 생각이 없고

> 병의 아픔과 매맞음 고통
> 같은 고통에도 분노 달라
> 고통의 책임 외부에 전가

그 결과로 일어난 고통에도
조건 때문에 생겼다는 생각이 없다네. [6:25-6:26]

세상의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찰나에 생멸하는 존재에게 실체란 없습니다. 이것을 '체는 공(空)하지만 용(用)은 있다.' 고 합니다. 이는 자아뿐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자아가 공하다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세상의 만물은 찰나찰나 끊임없는 생멸을 반복하고 변화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멸하는 몸과 마음을 통해 우리는 객관 세계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몸과 마음을 포함한 오온(五蘊)을 실재하는 경험의 주체라고 착각하고, 이 주체에게 자아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꿈속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속에서 부를 누리다 깼을 때 그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부를 누리던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꿈속에서는 결국 돈이든 사람이든 그 실체가 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꿈속에서의 경험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아와 연기(緣起)의 진리는 사실 난해한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의 진리는 열반의 세계,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야만 불이의 의식으로서 체험할 수 있고 이분법의 인식으로는 경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데에는 최고의 명약이기에 이분법에 근간을 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언어로써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과정에서 난해함과 불분명함 그리고 헷갈림은 사은품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분노, 분노에 사로잡힌 가해자, 그리고 그 해악에 당한 피해가는 모두 조건에 의해 행동했을 뿐이고, 그 행동에 독자적인 의도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다양한 조건들에 휘둘렸을 뿐인 이들에게 고통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논리적 사유들이 말장난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분노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 무정(無情)의 대상에게는 화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유정(有情)의 가해자 역시 무정물처럼 그저 조건에 의해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는 점만 이해한다면 분노가 일어나는 생각 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돌풍이 일어나 내 모자가 날아간 것과 어떤 가해자가 내 모자를 쳐서 날려버린 것이 비록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분노의 생각 길을 수정하고 싶다면 이 점을 곰곰이 사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위한 무아의 치료제

'용서' 라는 단어는 분노를 다스리는 행위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말하면 '인욕', '참회', '인내', '해탈' 입니다. '인욕' 의 시작은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가 해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참는 것이고, '참회' 란 이미 저지른 자기 자신의 해악을 씻어내는 것이며, '인내' 란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 여정의 끝에 결국 자아는 '해탈' 하게 됩니다. '해탈' 은 인욕, 참회, 인내, 용서를 통해 무아의 약을 바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논의 저자인 샨티데바 스님은 공성(空性)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중관학파 출신이기 때문에 〈입보살행론〉의 '인욕품' 에서도 역시 무아의 지혜를 바탕으로 분노의 실체를 해체합니다. 그 핵심 원리는 우리가 분노의 원인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실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분노해야 하는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샤키야학파가 주장하는 '원질'이나
니야야학파가 가정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도
'원질' 혹은 '자아'가 낳는 것이니
생기겠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네.
생기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때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자아가 영원하다면 불쾌한 경험은
유쾌한 경험으로 바꿀 수 없으리라. [6:27-6:28]

인도의 다양한 학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꿰뚫는 위대한 종교와 철학들은 모두 '내가 존재한다' 라는 전제에서 가르침을 펼칩니다. 하지만 오직 불교만이 철저하게 무아의 입장을 고수하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철학과 그 시작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지혜품〉에서는 다양한 학파들의 자아론을 모두 공성의 지혜로 논파하는데, 이 무아의 지혜를 복용해야 인욕에서 온전한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선악과로 인해 생겨난 자아를 비롯한 다양한 허구의 개념을 모두 용서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완수할 때 우리가 실재한다고 믿던 모든 것들 즉, 우주 전체가 사라집니다. 이 문장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주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無)로 돌아간다' 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공함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깨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환상의 경험이 사라진 자리에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경험이 이어질 것입니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모든 걸 자유자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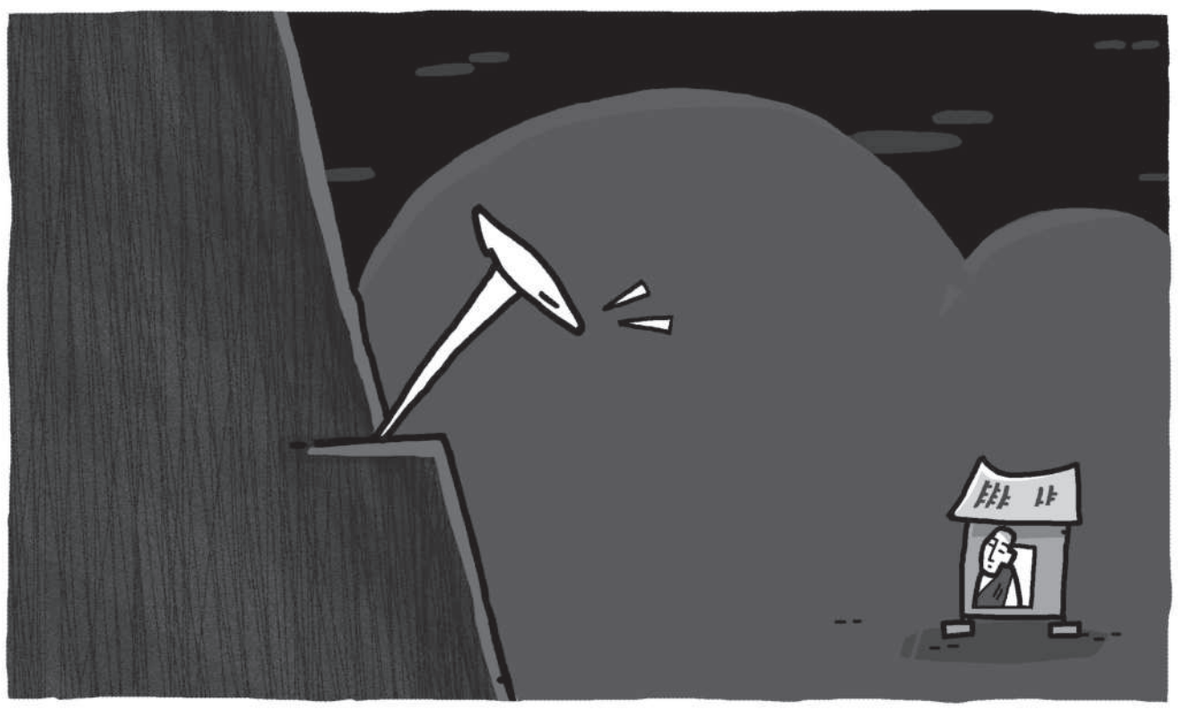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번에 이 땅, 지리에 대해서 얘기를 다 끝마치지 못한 채 서두만 얘기했습니다. 이 지리도 인간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부동한 자세의 영원한 자기의 일심이 있기 이전 바로 참 자기가 있지만 저런 산과 같은 것도 이 전체를 비유해서 이름을 짓자면 바로 지월봉 또는 풍월봉 또는 불봉 할 때 불월봉, 또는 이 네 가지에 관한 건이 바로 밝아서 오월봉이라고 한다면 불월봉, 풍월봉, 지월봉 이 자체가 한데 합쳐진 오월봉입니다. 이 오월봉은 그대로 밝아져서 있지마는 이 움죽거림은, 또 거기에 움죽거리는 활용에 의해서 뒷받침을 하는 것은, 상대적 원리로서 뒷받침이 돼 돌아가는 원리는 상대가 아니라면 그대로 있거든.

그러나 상대가 있느니만큼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아주 활달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같이, 즉 촉각과 시각, 감각 그런 세 가지에 의해서 상대성 원리로서 움죽거리게끔 돼 있거든. 거기에는 또 근본적으로 같이 수반돼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성 원리가, 똑같이 그것이 있어야만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된 것이 바로 산에도 청각이나 또는 백각, 지각, 식각, 감각 이러한 것이 다 수반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월봉…, 아까 얘기하다 빠졌구먼. 내 이렇게 빠뜨린다고. 아까 오월봉이라고 할 때 수월봉을 빠뜨렸어, 그 중요한 걸.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지….

지난번에 인간의 오신통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시쳇말로 망원경이니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러한 감각적인 어떠한 것이 거기에 수반이 된다면 굴리는 데는 오신통이 바로 거기에 포함돼서 돌아간다. 그래서 책정기라고 하는 것은 누진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반이 돼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법망에 대한 통신력에 의해서 그 모든 상대성의 원리와 삼태성의 원리, 삼심의 원리, 육신의 원리, 칠각의 원리가 다 수반됨으로써 이 세상 삼천대천세계의 구정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보배로 이루느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공부해서 마음으로 알지만 혀를 놀려서 말로 한다면, 그것이 속으로는 알지만 만약에 안다고 해서 겉으로 아는 말을 한다면 적을 두게 되고 또 담을 쌓게 되고, 건방진 게 되고 상대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혀를 놀려서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는 것이 삿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삿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는 것은 그대로 알고 있되 말하는 것을 삿되게 말을 하면 삿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려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산맥이나 인간의 세포의 맥이나, 이 속맥이나 겉맥이나 똑같이 흘러 도는 그 자체는 역시 마찬가집니다. 땅이라고 해서 맥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조선만 하더라도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는 큰사람이 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예를 들어서 어느 산맥에 있어서 관악산에는 관악산대로 목에다가 딱 봉을 박았고 아래에는 겨드랑이에다 박았는데 아, 겨드랑이에 박은 건 저기 청계산을 말하고, 그러니까 관악산에다가는 목에다 박고서 이 네 귀퉁이를 다 박아 재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여섯 개가 되고 저기는 두 개가 되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산이다, 좀 더 날 데가 있다 하는 산은 봉우리마다 봉을 박았어요. 그래서 산이 흘러 내려오는 맥을 끊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삼 년 전 얘기지만 올까지 끝이 났다고 보지요. 삼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맥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까지 생각해 본 예가 없어요. 우정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서. 근데 삼 년 전에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이 통신망에 의해서, 법망이라고 하죠? 이걸 법망이라고 합니다. 왜? 통신망에 의해서 이 무슨 일에 대해 한생각을 했다 하면 그게 법이 되기 때문에 법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통신망을 좇아서 단계 단계 짓다가 보니까 그것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혈맥에 의해서. 이것은 안다 모른다 이러한 말을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이 스님네들 삼백 명이 출전해서 삼 년을, 올까지 마지막 끝을 낸 겁니다. 다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8 · 15 해방이 되고 그때에 논란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그 후부터. 누구나가 생각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모르는 일이고 생각을 곰곰이 음미해 보고 좀 더 그거를 숭상해 본다면 어딘가 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깁니다. 생각을 안 하면 아예 모르고. 우리가 또 거론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도 없이, 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목석같은 사람은 부처 될 자격도 없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처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될 자격이 있지 아니, 분별도 못 하고 움죽거리지도 못하고 생각도 내지 못하고 그러는데 무슨 부처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통신망에 의해서 그런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문제는 아주 컸더라는 얘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당당히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어깨에다가 만약에 쇠꼬치를 박아 놓는다면 사람이 힘을 못 쓰듯이, 그와 같이 힘을 못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님네들 삼백 명이 출전이 돼서 삼 년을 두고 그것을 낱낱이 뽑아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느 스님네들이 그렇게 했느냐고 할 테죠. 하지만 스님네들이 꼭 이런 걸 한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으로부터 그 스님네들은 법신으로서 또는 화신으로서, 전부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삼 년을 두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삼 년이 사흘도 될 수 있고 삼 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맥이라 그러는 것도 사람과 같아서 즉 혈맥이다 이겁니다.

또 얘기 한마디 할까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국록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친구가 아주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다섯 분이 다 국록을 먹으면서 아주 절친했거든요. 그렇게 나라의 국록을 먹고 있는 동안에 보물도 있겠지마는 유족에게 남길 수 있는, 선대적부터 내려오던 유물이 그득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대로 그렇게 내려오던 집이니까. 근데 그 다섯 분이 말입니다, 하루는 어디를, 우리네 지금 말로 한다면 산책을 갔습니다. 가마를 타고 산책을 가서 어느 정자에서 놀다가 내려오는데, 하인들도 모두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에 뭐가 툭 차였습니다. 보니까 해골이었어요. "얘, 아무개야!" "예." "이 해골이 이렇게 굴러다니니 저기다가 묻어 주고 가자. 이게 누구의 해골인지 모르니 이것을 묻어 주고 가야지, 어찌 사람의 눈으로 보고서 묻어 주지를 않고 가겠느냐." 하고 묻어 주고 인제 갔단 말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일이 생긴 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야, 이쪽 친구의 유물을 이쪽 친구 집에다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난데없이 이 친구가 그 집을 가고 싶어서 가서는 밤이면 몰래 그걸 가져오는 거야. 이쪽 친구는 몰래 또 이쪽 집에 와서 가져가는 거야. 서로 이러다 보니깐 뒤죽박죽이 된 거야. 그런데 정신이 들고 보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러거든.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을 그러니까 나라에까지 고해져서 알았거든. 불러다가 "왜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오다가 해골을 묻어 주고부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파 버려라."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저녁 다섯 사람 꿈에 아주 키가 부쩍 크고 도둑놈같이 생긴 흔백이 나타나서 "살려 주십시오. 저는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이거야, 응? "세상에 자라면서 남의 집 가서 좋은 물건 가져오는 것밖에는 배운 게 없어서 선생님들이 고마워서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해 드리려고 그런 걸 그냥 갖다 드리려고 가져온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언제 선생님들의 그 은덕을 갚아 드리리까." 그런데 그 다섯 집에서만이 아니라 동네의 유물이라는 건 다 훔쳐오는 거라. 그러니 그 다섯 사람의 면목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섯 사람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됐죠. 웬만큼 산다는 집, 선비 집에 가서 다 훔쳐다가 그 집에 갖다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이 공부 하는 데는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 믿음이 투철해야

☞ 21면에서 계속

놓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는데 그래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제발 좀 어떻게 살려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는데 그래도 글을 많이 읽은 분들이라 다섯 분이 다 그런 꿈을 꿨으니까 다섯이 모여서 그 얘기를 다 주고받고 난 뒤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있다가 하는 소리가 "여보게, 그 사람이 생전에 살면서 도둑질밖에 한 일이 없어. 그러니 그 해골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즉 말하자면 의식이 그렇게 동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해골을 파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저 바다에다 끼얹으세." 이러거든요.

또 한 분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 가루를 찧어서 바다에다 뿌리면 뭘 합니까. 그러면 그 의식이 바다에 다 떠내려가겠습니까?" 하니까 한 분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무리 바다에 말갛게 씻겨서 가루도 남지 않고 없어진다 할지언정 어찌 그 의식이 씻어지리까." 했습니다. 그러니 또 한 분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렇다면 의식을 내가 집어먹겠소."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집어삼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분들이 다 말을 하기를 "자네가 삼킨다면 자네가 도둑질할 거 아닌가." 이렇게 됐습니다. "본래 나는 선비로서 대대로 내려오는 긍지가 있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 근본에는 그 의식을 넣어도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을 선비로 만들더래요.

그러니 선비를 만든 것도 그렇지마는 누구나가 이 도리를 모르면 꼼빡없이 속지 별수 없어요. 선맥은 선맥대로 있는 거고 법맥은 법맥대로 있고 생명력은 생명력대로 있고, 그런 건 그런 것대로 의식적으로 자기 그릇이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도리를 모른다면 이걸 커버를 못 하고 유동성이 없어서 굴릴 줄 모르니까 꼼짝없이 당했지 별수가 없거든. 그러고 난 뒤에 동네가 아주 맑고 청정하게 되돌아가고 잘사는 동네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죠. 장사꾼이 오고 가다가, 예전에는 일주일 일주일 장이 섰습니다. 산 고개 몇 개를 넘어가야 물건을 해 가지고 가서 도부를 치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장에 가서 물건을 하게끔 돼 있는데 아니, 하루는 물건을 해 가지고 잔뜩 짊어지고 오는데 해골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그 해골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올 수 없어서 묻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야. 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갔다 오다가 묻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는데 아, 발이 꽉 붙었단 말이야. 그렇게 발이 꽉 붙으니까 '이거 왜 내 발이 안 떼어지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하! 내가 저거를 묻어 준다고 했다가 그냥 가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서는 쪼금 쉬었다가 한다고 그런 게 그만 홈빡 잠이 들었던 거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 키가 후리후리한 남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을 내가 이렇게 만난 것이 지금 삼십 년 만이다 이거야, 삼십 년. 그런데 거기서 삼십 년 동안 오고 가는 사람을 영 못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해서 "그럼 삼십 년 동안 여기 사람이 안 다녔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딴 데 묻혔었는데 우리 집이 지금 다 망했다 이거야. 그래도 선대로 내려오면서 선비 집이라 산소에다 묻었는데 지관들이 보고서는 그 터가 좋다고, 산 터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 거를 묻고 자기는 파서 여기다가 버린 것이 이렇게 굴러 굴러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왔다 이거야. "그러니 그것을 파고 또다시 내가 그걸 뺏는다면 안 되니까 당신의 마음이 꽂히는 대로 양지바른 데다 묻어 준다면 내 그 신세는 안 잊으리다." 하더랍니다.

그래 인제 가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딱 발을 디뎠는데 그 발이 옴쭉거려지질 않아.

아무 생각 없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도 없이
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목석같은 사람은 부처 될 자격도 없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처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꼭대기에 아주 잘 내려다보이고 물이 흐르고 뭐, 좋아서 거기서 나뭇가지를 좀 꺾고 또 돌을 얇은 걸 주워다가 그 자리에다 그냥 묻은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묻어 주고 짐을 지고 인제 턱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서 하는 소리가 "삼 년 후에 아무데 골의 아무개를 찾아가신다면 거기에 우리 자식들이 살고 있으니 그 자식들한테 그런 사실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당신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보따릴 놔도 살 수 있게끔 될 테니 그렇게 신세를 갚고자 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선, 자기가 잘살고 못살고는 떠나서, 하도 궁금해서 거길 찾아간 겁니다. 거기에서는 산소가 바뀐 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나라에서 그 산을 다 파 버리고 그 해골을 찾았는데 있어야지. 나라에서 다 나서서 해골을 찾았지만 이이만 알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 그이가 찾아가서 그런 사실 얘기를 하니까, 이건 꿈 얘기를 다 해 줘 가지고 발각이 나서 나라에서도 알고 그 집에서도 알고 그래서 그 해골을 파다가 산에 다시 묻었어요. 다시 묻고 그렇게 나라에서도 상을 내리고 그 집에서도 상을 내리고, 그래도 나라의 국록을 먹고 선비로서 대대로 내려오던 집이니까 망했다 할지라도 삼 년이 흐른 뒤에는 그래도 참 잘됐거든. 다시 국록을 먹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종의 문서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따리 장사도 없어지고 그 고을에서 큰 집도 지어 주고 잘살게 됐더랍니다.

그런 이치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 여기 이게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군인 되시는 분, 이 대령인가 누구, 난 이름도 잘 모릅니다마는 이 공동묘지를 다 밀어 재끼고선, 즉 말하자면 해골이나 뼈를 다 주워서 그걸 각각 이렇게 해서 좀 태워 줬거나 또 각각 해 가지고 얻다 묻어 줬거나 이랬다면 또 별문젠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마 한데 전부 추려서 그냥 어디 한군데다가 묻었는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여기 사람도 죽기도 하고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 밀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러니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몸뚱이에다가 착을 안 뒀기 때문에, 이 송장이 지금 살아 있을 때 착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도 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 동댕이를 쳐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돌아다니는 게 보기 싫거든.

그렇듯이 이 산맥도 역시 우리 인간이 상대성 원리로서, 우리가 상대성이 있으면서도 바로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도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용을 하고 말을 하고 행하고 하는 그 속에, 공한 자체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산맥 하나하나가 어디고 그냥 살아 있지 죽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움죽거리지 않는 듯해도 쉴 사이 없이 움죽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도 그렇고 산 혈맥도 그렇고, '산 혈맥' 하면 혈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감각적으로나 지각적으로나 모든 게 훌륭하게 그렇게 같이 바로 대립이 된다는 얘깁니다. 대립이 되면서 바로 공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슨 큰일을 할 때도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같이 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녹음 안됨) 그러면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주 섭류의 이 활용의 돌아가는 이치를, 진리를 서로가 서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도리를 몰라서 그렇지 모든 걸 자유자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때로는 참, 누구하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싱긋이 웃고 서로가 재미있게 웃을 수도 있고 서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노래는 이런 데서 그냥 하는 곡이지마는 그 가사는 참 훌륭하게, 풍류스럽게, 말할 수도 없이 좋은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도 그 가사 한번 풍류스럽게 나오는 그 마음에서, 우주의 섭류와 저런 지상의 섭류나 지하의 섭류를 다 같이 수반을 하면서 노래가 풍류스럽게 나올 때 참,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배를 모두 각각 여러분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 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도 삼 초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 년이 걸렸다는 그 뜻은 여러분이 겪은 일들이, 우리가 8·15 해방이 되고 너무도 겪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전쟁 아닌 전쟁을, 인간들이 사는 데서 또는 인간 이하의 생명들도 모두 전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전쟁 아닌 전쟁이죠. 생존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저런 땅보다도 이 흙보다도 못난, 나무보다도 못난, 새보다도 못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지능이 아주 좋지 못하면 요 지금 당장 자기가 생각한 상상력으로써 생각한 것만 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거든요. 자기 집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도 모르고, 자기 부모가 어떡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시대에는 지금 앞으로 어떡해야 산다는 것도 생각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런 젊은 청년들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능이 아주 부족하다면 이거는 앞도 뒤도 생각지 못하거든요. 우격다짐이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백 프로 된다면 바로 물리가 백 프로고 물리가 백 프로라면 지혜가 백 프로고, 지혜가 백 프로라면 그 백 프로를 가지고 우리가 앞뒤를 다 훌륭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영원토록 자기의 씨를 뿌린 거 자기가 길러 낼 수 있는 영원의 그 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남녀를 막론해 놓고 공부하는 것이 영원토록,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지능, 자기의 지혜가 바로 대대로 내려가면서 연결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구 놀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구 하면 거기에서 백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한 사람 나기가 어려워. 꼭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에는 말을 앵무새같이 잘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 믿음이 참 투철해야만이 앞날에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또 한편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도 여실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는 우환, 가환, 유전성 이러한 데, 또는 생사윤회에도 끄달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서도 또 남을 위해서도 살 수 있다 이거야.

길을 가다가도 건져. 한생각만 내면 건져져. 이게 무슨 돈이 드는 거야, 애를 쓰는 거야? 한생각만 내면 거둬져. 이게 무주상 보시라. 아니, 돈이 드니 못 해, 내 육신을 놀리니 못 해? 아름다운 한생각만 내 주면 다 보시가 되는 건데, 응?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계를 다 집어먹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세계를 다 건지고도 남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리만 알면 서슴지 않고 한생각 내 줄 수 있는 거죠.

'야, 난 중생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스님보다 힘이 없으니까, 또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우리는 공부를 못 했으니까 이런 것도 못 하지.' 하지 말고, 하다 못해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허술히 보지 말라 이런 소립니다. 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언제적에 사람으로만 살았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도살장에 한번 안 가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남한테 밟혀 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이 그냥 어린애로 쑥 나와 가지고 어른 된 사람 하나도 없겠죠? 또 어린애로 쑥 나와 가지고 그냥 늙은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간 되기에 얼마만큼 시련을 겪었나를, 과학자들이 써 놓은 책을 여러분이 본다 하더라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6월 28일 일반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현불 논단

먹거리와 기후위기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진화 · 문명사적 관점으로 보면
기후변화 · 전염병이 흐름 바꿔
직립보행 이후 먹거리에 변화
사냥 · 고기도 익혀 먹으며 진화

농경 · 동물의 가축화 시작으로
신성시되던 숲의 가치도 하락
육식은 부의 상징…급속 확대

탐욕적인 축산, 지구위기 주범
지구온난화 가속 페달 멈춰야

지난 2년 동안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국제사회의 이슈와 우리정부의 핵심 정책은 단연 '코로나19 대응정책' 과 '기후위기 대응전략' 이다.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역사에서 기후변화와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촉발된 전염병은 인류사의 흐름을 바꾸어 왔다.

약 250년 전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숲이 줄어들고 초원지역이 확산되자 유인원 중에도 인간과에 속한 선행인류는 열매와 나뭇잎을 먹으면서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방식을 버리고 땅을 딛고 사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서서히 직립보행 능력과 달리는 속도가 향상되고 동시에 털이 줄어들면서 민첩성과 지구력이 확보되자 먹거리에 변화가 일어났다. 식물 채집과 함께 맹수들이 사냥한 고기 사체를 얻거나 훔치면서 육식을 시작했고, 불을 이용해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먹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화율이 높아졌다.

이 결과로 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신체는 강건한 골격으로 진화하였으며 나뭇잎과 열매 등을 주로 먹던 때보다 최소 5배 이상 식사 시간을 감축하게 되었다. 초원에서 식사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맹수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 생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시작된 인류의 육식 선택은 진화와 확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따뜻해지고 기후가 안정되어 농경이 가능했던 '홀로세' 에 진입하면서 인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택했다. 경작이 가능한 기후 덕분에 숲에 불을 놓거나 벌목을 통해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사냥하던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숲은 더 이상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초지 조성과 사료 재배를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

인간 진화의 에너지였던 육식은 부의 상징, 지배계급의 권위를 잇는 제사의 희생양으로 변질되었으며, 가축의 대규모 사육은 주변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하여 대규모 농경, 토목공사와 함께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그 결과, 기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방목과 유목을 유지했던 이슬람 문명권이 거의 예외 없이 사막화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인 빙하기 때부터 홀로세가 시작된 이후 산업혁명 이전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1만 년에 최대 4℃ 상승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인 1860년 이후의 온도 변화를 보면 불과 100여 년 사이에 1℃가 상승했다. 1만 년 동안의 4℃ 상승은 100년 동안 0.04℃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혁명 후의 1℃ 상승은, 기온이 그 이전에 비해 25배 빠른 속도로 급상승했다는 의미다.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화석연료인 석탄과 함께 공장형 목축은 지구온난화의 가속 페달을 밟아 왔다. 기독교 문명이 미주대륙에 건너간 이후 시작된 탐욕적인 가축사육은 지구 기후위기의 최대 주범 중 하나가 되었다. 붓다가 경험했을 갠지스 대평원의 숲이 사라진 속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이다.

환경 파괴로 인더스, 그리스 · 로마, 마야 문명이 붕괴하더라도 그것은 특정 지역의 재앙이었으며, 원래 가축이 앓던 홍역, 폐결핵, 천연두, 백일해 등이 새로운 지역에 전파되어 인구의 50%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전 세계로 동시에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코로나는 글로벌 경제 · 문화 시스템과 운송수단으로 전 세계에 하루 안에 확산되고, 기후위기는 특정 지역만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 지구 행성 전체가 파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행기를 포함하여 자동차, 기차, 배 등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3.5%인 반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양은 그보다 33.3% 많은 18%이다.

연기법, 육바라밀 등을 운운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가?

社 說

불자 디지털공동체 구축을

창립 66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전국의 흩어진 신도들을 하나로 모으는 디지털 정보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6월 24일 기업IT메신저 개발업체인 비드테크와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은 것이다. 신도들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웹과 앱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신도 멤버십을 디지털화 해 결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상부상조하는 불자 네트워크다. 중앙신도회는 디지털 신도증을 통해 멤버십을 확대하고, 불자기업에서 불자들이 결재시 할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불자들이 불자기업을 활용하면, 기업 측에서는 고객이 확보되며, 불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인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인적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체끼리도 도울 수 있는 경제공동체가 구축된다.

이에 대해 신도조직들에서는 기대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불자들은 이웃종교에 비해 상부상조하는 조직화가 부족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개신교인이 하는 식당에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드나들지만, 불자들이 하는 식당에는 개신교인들이 오지 않고, 같은 개신교인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그런 측면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멤버십 확대는 시대 변화 속에 포교의 또 다른 방편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부처님은 재세시 인도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하나의 사상적 중심이 되었다. 고대인도사회의 신흥기업가들은 보다 자유로운 불교사상에 힘입어 그들만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했다. 중앙신도회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을 발판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동국대 전산원 명칭 변경 시급하다

동국대 전산원의 기관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동국대 전산원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1975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6월 22일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에서 보고되며 알려졌다. 당시 보고자로 나선 손재현 동국대 전산원장은 "숭실대, 한양대, 강원대 등은 이미 학점은행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해 많은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동국대 전산원 관계자들은 오래된 명칭으로 인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선 고등학교에 동국대 전산원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면 진학지도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단순 전산학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동국대 전산원은 컴퓨터 공학부터 멀티미디어학, 영화학, 광고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공들이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지만, 기관명으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게 된 것이다.

동국대 전산원은 전문 기관의 의뢰를 통해 6개의 새 명칭을 제안 받았고, 학생과 교직원 의견 수렴 결과 '동국대 핵심역량교육원' 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국대 DUICA(듀이카)'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차기 이사회에서 명칭 변경이 최종 결정되면 전산원은 일선 고등학교 홍보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대학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학 내 기관들도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동국대 전산원의 명칭 변경은 변화를 위한 자구책 중 하나다. 1970년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시작해 이젠 국민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동국대 전산원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묘법연화경'으로 사는 것은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산지가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감염인을 위한 한국범종교단체의 회장이라는 소임을 맡음과 동시에 코로나 19를 맞닥뜨리게 되니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모든 활동을 멈추라는 사회의 요청 속에서도 움직여야하는 우리의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염인들을 위한 요양원 · 요양병원 시설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감염인들의 사회적 낙인과 방치의 현실' 은 계속되고 있기에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유관기관 간담회' 를 개최하기로 하고 기관들의 실무자를 초대하니 15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 거리두기를 하고 모일 수 있게 되었다. 각 기관들은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과 소통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함께 공유하였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이 난제를 나누었다.

요양원장 교무님은 의료진들이 감염인들에 대한 의료적 지식의 부재와 편견을 가장 큰 문제로 얘기하였고, 감염인들 모임의 대표는 사회적 낙인과 감염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낙인이 '좌절' 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림 · 최주현

활동가인 선생님은 감염인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원이나 거절하는 요양원 모두 '낙인' 의 같은 관점임을 지적하였다. 병원의 한 간호사는 얼마 전 상담한 한 젊은 감염인의 고통을 예로 들었는데, 함께 밥을 먹던 어머니가 아들이 먹던 컵의 물을 잘못 알고 먹다가 급하게 물을 뱉어버리는 모습을 감염인 아들이 지켜보며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 말에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었다.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나는 과연 〈반야심경〉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넘쳐나는 요양원과 요양시설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염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의 벽으로 아픈 몸을 편히 누일 곳이 없는 것이 감염인들의 현실이다.

새벽예불 후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 을 읽을 때 한 큰스님이 하셨던 질문이 떠올랐다. "무엇이 〈묘법연화경〉이냐? 〈법화경〉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묘법연화경〉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꽉 막히게 하셨던 그 질문의 본질이 이제야 느껴진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때, 그때를 '묘법' 이라 하는 것은 아닐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FDA 등록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여름용 마스크는 색상별로 최소주문수량 100개로 개당 판매가는 3,500원입니다.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백두대간에서 재배한 돌배 세워담은 도라지 스틱 液

자연에서 찾은 건강

300BOX 한정특판 특별보급가



~~₩75,000~~ → **₩57,000**

[제품용량] 10ml x 30포(300ml) / 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도라지추출물(고형분8%이상, 도라지뿌리 11.11%)56.9%, 배추출물(고형분4%이상 / 돌배나무열매11.11%)12%, 배농축액(고형분60%이상)8%

인터넷에서 도라지 추출물 성분인
NAVER 플라티코딘D효능 ▼ 을 검색하세요.

백두대간 재배 약도라지, 돌배 제품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무농약, 유기농 재배, HACCP 인증
- 백두대간 800m에서 이식 재배한 8년근 약도라지 사용
- 다양한 영양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한 유기농 돌배 사용.
- 평창 동계올림픽 면세점에서도 판매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도라지에 함유된 "플라티코딘 D"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

자연에서 찾은 건강 진액골드
노루궁뎅이버섯 津液



~~₩69,000~~ → **₩55,000**

[제품용량] 80ml × 30개입 / 1일 1~2회 /1회 (80ml)
[원재료명 및 함량]
노루궁뎅이버섯추출액88.9%(노루궁뎅이버섯 고형분 2%, 국산), 배농축액10%(국산), 오미자청(국산), 생강농축액(국산)

인터넷에서 NAVER 노루궁뎅이버섯효능 ▼ 을 검색하세요.

노루궁뎅이버섯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 실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노루궁뎅이버섯은 인지개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헤리세논, 에리나신 함유.
- 위산분비 조절, 염증개선 및 위장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올레아놀릭산" 함유.
-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제거 역할.
-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

"고객님의 건강을 생각하며 담은 건강한 자연! 믿고 드셔도 됩니다." 문의 :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오늘도 행복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하는 유튜버 '법상스님'이
온택트 시대! 온라인 실시간 시청자와 참여로 함께하는
고(苦)의 소멸과 완전한 행복을 위한 특강!
매주 목요일 그 행복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방송시간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20:00, 일 08: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